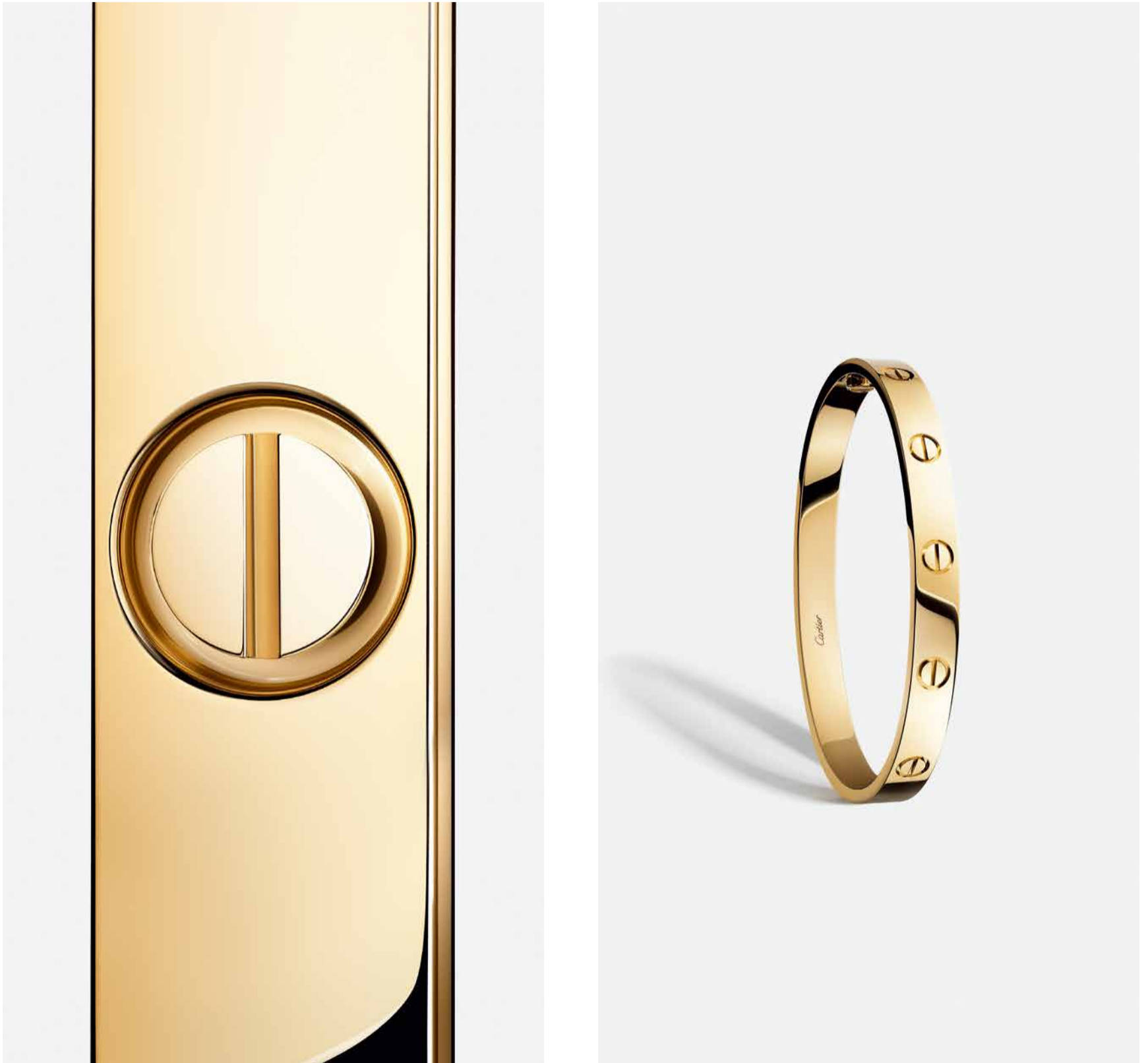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JANUARY 2024
vol. 263



LOVE
Cartier



louisvuitton.com

LOUIS VUITTON



12 14

Style **조선일보**



LOVE Cartier

독특한 콘셉트의 가운짜에 'LOVE' 브레이슬릿은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스타일먼트 피스다. 특정한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착용할 수 있는 손목 위 골드 밴드를 통해 사랑하는 연인을 결속시킨다. 기능적이면서 장식적이기도 한 스크루를 걸어서 보이도록 드러내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함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문의 1566-7277

ART + CULTURE

44

32

42

37

40

다양성의 가치

06 **CHAUMET**

- 07 **GOLDEN HOUR** 황혼도 높은 골드 워치의 매력.
- 09 **BOLD & GOLD** 존재감을 뽐내는 단 하나의 골드 링.
- 12 **나와 너, 그들의 이야기... 우리의 화두** 타이베이 비엔날레는 먼 길을 떠난 보람을 느낄 만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짧은 여정이지만 이를 계기로 비엔날레가 여전히 '발품'과 '시유'와 '공감'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본다.
- 14 **가장 사적인 '취향 페어링'을 찾아서** 요즘 가장 흥미로운 문화가 뒤섞이고 있는 곳은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아닐까. 가장 사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공간에서는 특별한 '취향 페어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리빙룸을 꿈꾸는가?
- 15 **THE ART OF JEWELRY** 매종의 취향과 미학, 그리고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전시 (안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 반클리프 아펠 코리아 자사장 프레데릭 레벨로(Frederic Reblo)를 만나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16 **PERFECT TIME**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독보적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더해 완성한 J12,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사벨 클래스를 완성했다.
- 22 **LADY IN RED** 새해 떠오르는 태완처럼 붉게, 더 붉게 타오를 것.
- 28 **PRESTIGE CLASS** 하이엔드 스크레이어의 존재감.

SPECIAL - ART + CULTURE

- 32 **A GLIMPSE INTO VIENNA'S ART SCENE** 을거울, 오로지 미술 탐방으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을 찾았다.
- 37 **이해하고 이해받기 위한 여정** 마누엘 솔라노(Manuel Solano)와 나는 따뜻한 한인투부.
- 38 **지금 우리 미술을 향한, 세상의 달라진 시선** 1960~1970년대 한국 실험 미술을 조명하는 그룹전 (Only the Young)이 열리고 있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 40 **REFLECTIONS ON ART AND DIVERSITY** 다양성은 창의성과 사회 혁신, 포용력을 결정한다. 또 익숙지 않음에 대한 공감을 키운다. 시드니의아트스페이스 재개관을 기념하며.
- 42 **하루키의 텍스트가 기억될, 미래의 기념관이자 현재의 도서관** 2021년 9월, 무라카미 하루키의 모교인 와세다 대학교 캠퍼스에 세계적 대세 건축가 구마 겐고의 설계로 하루키 라이브러리가 탄생했다.
- 44 **화폭에 담긴 음률** 평면에 감정을 담아내 보는 이에게 깊은 울림과 파동을 주는 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 광범위하고도 철저하다 싶을 만큼 차분하게 묘사하는 그의 회고전이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Fondation Louis Vuitton에서 오는 4월 2일까지 열린다.
- 45 **물, 바람이 만나는 계곡의 휴식** 대만 타이중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쯤 소요되는 거리에 자리한, 평온한 온천 리조트 호스노아구원에 다녀왔다.
- 46 **EXHIBITION IN FOCUS** 2024년 1월, 한해의 마라톤이 아니라 다양한 미례들을 알 수 있는 예술가들의 전시에서 우리는 영감을 받고 행복한 기운을 얻게 될 것 같다.
- 47 **REMEMBER THE EXHIBITION** 새해를 시작한 지금, 1년을 보낼 거 앞 서 잠시 숨을 돌리고 다양한 전시 소식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Style **조선일보**

Issue.263 January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라온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 권신비 분혜 | 제민 | 리은 | 인세 | 타미타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간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Margherita collection
DAMIANI.COM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더해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세이브다블드린 네크리스 84만원 불가역.

고급스러운 느낌을 부여하는 로고 프린트 스키 헬멧 가격 미정 로로파아나 by 미스터 포터.

높은 보온성과 강력한 견고함을 자랑하는 파이어모스 워밍드 브러 부츠 1백25만원 캐디우스.

안보성 차림용 FF 레퍼원으로 포인트를 준 그레이니얼론 스키장갑 90만원 맨디.

화이트 골드와 블랙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트라니티링 2인원용 시계밴드.

강력적인 컬러 하모니가 돋보이는 트라이컬러 니트 하이 넥 모자 8백33만원 루이비통.

ski wear Selection

새하얀 슬로프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통통 튀는 컬러감의 스키웨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미러렌즈에 아이코닉한 로고가 돋보이는 사자나 슬리트 아이보리 프레임 스키 마스크 1백45만원 구찌.



뛰어난 방수력과 보온성을 갖추었으며, 속안에 갈라진 포트를 중부츠 1백45만원 몽클레르아이디스 오리지널스.

크리스탈을 정밀하고 총총하게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루나 스타드 아이링 2인원용 스와로브스키.



매력적인 패턴링이 시선을 사로잡는 디오르 앤드 아크 스키 슬리퍼 183cm 1천1백만원 디올 펜.



다이아몬드 다이얼에 포인트를 더하고 화이트 세라믹으로 제작한 심플한 느낌의 J12 워치 33mm 1천550만원 샤넬 워치.



몽실한 패턴이 풍성한 느낌을 자아내는 커리어 노트를 지니는 파피에 노트 22cm, 27x11x22cm, 가격 미정 마니.



총 1.25카럿 스퀘어 컷 세라미 20캐럿 총 0.46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6캐럿 세팅한 주드 리얼링 2인원용 디올 쇼어.

펜디 02-544-1925 까르띠에 1877-4326
구찌 02-3452-1521 류잡 02-6905-3708
불가리 02-6105-2120 캐디우스 02-3213-2336
루이비통 02-3432-1854 디올 펜 02-3280-0104 몽클레르아이디스 오리지널스 0030-8321-0794 스와로브스키 02-6911-0883 샤넬 워치 080-805-9628
마르니 02-772-3233 쇼어 02-3442-3359 미스터 포터 www.mporter.com

Golden Hour

워치로도 액세서리로도 손색없는, 활용도 높은 골드 워치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중간 워치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워치 난투켓 29x17mm 사이즈의 직사각형 로즈 골드 케이스에 채인 형태의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케이스에는 총 0.158캐럿의 55개 다이아몬드를 스프링클링 세팅했고, 다이얼에는 총 0.09캐럿의 35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특한 감성을 부여했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부젤라티 마크의 여성 다이아몬드 골드 마크 컬렉션의 가장 미니멀한 디자인을 구현한 워치로 0릴리아시 리기토(rigato) 기법으로 새긴 세밀한 선 장식과 장인 정신이 담긴 정교한 오르나토(ornato)가 돋보인다. 옐로와 화이트 골드를 적절하게 믹스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브레이슬릿으로 미루라했다. 3천1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쇼피드 알파인 이글 33mm 세련된 스포츠 워치의 정석으로 대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개성 있고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루넬트 스틸과 18K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했으며, 빌드 슬러 다이얼에 3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마무리해 여성의 손목에서 완벽한 매력을 이룬다. 6천3백40만원. 문의 02-6905-3390

까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스웨이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새틴 브러시드 슬러 마킹 다이얼과 검 도양 블루 스틸 링크가 클래식한 느낌을 부여하며,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반클리프 아펠 바셀리 18K 핑크 골드 비즈로 이뤄진 23mm 사이즈 케이스에 골드 비즈로 엮은 브레이슬릿을 매치하고 마더오브벌 다이얼과 12시 방향 로고로 도톰하게 완성했다. 아담한 사이즈로 가늘어진 여성의 손목에 액세서리처럼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다. 4천2백30만원대 문의 1877-4128

에거 르클트르 리베르스 클래식 스물 듀에트 케이스 사이즈 34, 2x21mm의 직사각형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화이트와 블랙, 듀얼 다이얼로 활용 가능한 워치. 블랙 다이얼의 케이스에는 워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부여한다. 5천4백만원. 문의 1877-4201

디올 타원핀스 라미니 디아돌 19mm의 옐로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한 작고 여성스러운 워치. 베젤에 0.3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브레이슬릿에는 격자 무늬의 장식을 더해 디올 패션 하우스의 감성을 보여준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성영민



athleisure look

Selection

편안함은 기본, 고기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패셔너블함까지 갖췄다. 요즘 패션 피플의 애슬레저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43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문패이츠와 칼리브트 칼리브트 기능을 갖춘 피프티 퍼센트 플라이백 크로노그라프 4옥타윈트(엔진)를 자랑함.

두께감 있는 질을 장려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고, 향상된 내구력으로 제작된 러닝 47인원 오너스커티어.

로고 디자인이 특징인 코튼 소재의 미드컷 크루 넥 3개 1세트 2인원 아디다스.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레플리 핏의 러닝 47인원 오너스커티어.

가볍고 유연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코튼 소재의 트럭스 2인원 인라인 로제리.

강력한 코르덴이 위에 코르덴을 더해줄 크로노그라프 핏을 가미한 블루-바이에디 로제리.

밝은 컬러감이 영한 감성을 전하는 송이 가죽 소재의 'apa' 백, 25X17X14.5cm, 1백90만원대 토즈.

경쾌한 컬러 하모니를 보여주는 재질용 메시 소재의 나이스 나이스 90만원대 걸로제리.

활동적인 감성을 더해줄 100% 천연 양모 소재의 르플라이유 엑스트라 폼 케이스, 7.5X17cm, 57만원 총상.

어디서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인원 2인원 3인원 4인원 5인원 6인원 7인원 8인원 9인원 10인원 11인원 12인원 13인원 14인원 15인원 16인원 17인원 18인원 19인원 20인원 21인원 22인원 23인원 24인원 25인원 26인원 27인원 28인원 29인원 30인원 31인원 32인원 33인원 34인원 35인원 36인원 37인원 38인원 39인원 40인원 41인원 42인원 43인원 44인원 45인원 46인원 47인원 48인원 49인원 50인원 51인원 52인원 53인원 54인원 55인원 56인원 57인원 58인원 59인원 60인원 61인원 62인원 63인원 64인원 65인원 66인원 67인원 68인원 69인원 70인원 71인원 72인원 73인원 74인원 75인원 76인원 77인원 78인원 79인원 80인원 81인원 82인원 83인원 84인원 85인원 86인원 87인원 88인원 89인원 90인원 91인원 92인원 93인원 94인원 95인원 96인원 97인원 98인원 99인원 100인원

이전 컬러 13000원보다 10% 추가 할인 혜택으로 11900원 (엔진 포함) 1인원 2인원 3인원 4인원 5인원 6인원 7인원 8인원 9인원 10인원 11인원 12인원 13인원 14인원 15인원 16인원 17인원 18인원 19인원 20인원 21인원 22인원 23인원 24인원 25인원 26인원 27인원 28인원 29인원 30인원 31인원 32인원 33인원 34인원 35인원 36인원 37인원 38인원 39인원 40인원 41인원 42인원 43인원 44인원 45인원 46인원 47인원 48인원 49인원 50인원 51인원 52인원 53인원 54인원 55인원 56인원 57인원 58인원 59인원 60인원 61인원 62인원 63인원 64인원 65인원 66인원 67인원 68인원 69인원 70인원 71인원 72인원 73인원 74인원 75인원 76인원 77인원 78인원 79인원 80인원 81인원 82인원 83인원 84인원 85인원 86인원 87인원 88인원 89인원 90인원 91인원 92인원 93인원 94인원 95인원 96인원 97인원 98인원 99인원 100인원

로제리 02-3479-1785 블루레온 02-6911-0883 토즈 02-3438-6008 슬론스 바이 에디 슬리먼 1577-8841 콜로에 02-6905-3670 총상 02-513-2288 리프스테 02-979-5930 루이 비통 02-3432-1854 다음 피인주얼리 02-3280-0104 블랑팡 02-2118-6227 티파니 02-6250-8620 오너스커티어 02-3663-8335 아디다스 1588-8241 보스 070-4077-3823 롤로 힐프 로제리 02-6004-0220



Bold & Gold

존재감을 뽐내는데 단 하나의 골드 링,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 티파니 티파니 T1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링 그레이트프릭스(고 건축적 디자인) 티파니 T 트루 캠페인의 링으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아이코닉한 T 모티브에 라운드 브라운 다이아몬드를 톱 패에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가문파에 캠페리 드 카르파에 링 대담하고 아이코닉한 모티브를 담아낸 대표 캠페리의 링으로 핑크 골드와 옻색으로 완성해 다이아몬드를 세로로 우아한 분위기를 부여했다. 1천900만원, 문의 1877-4326 사넬 하인 주얼리 코코 크리쉬 다이아몬드 링 브라운의 대표작인 팔링 모티브를 완성해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46 캐럿의 브라운 톱 다이아몬드 53개를 패에 세팅해 우아하고 화려하게 완성한 링 1천300만원,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불가리 불가리 카보숑 링 1960년대부터 사랑받은 카보숑 컷에서 영감을 받은 18K 옻색 골드와 유색 다이아몬드 소재의 순수한 매력을 드러낸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이 가진 이 우아함을 선사한다. 3백90만원, 문의 02-6105-2120 다이아나 벨 에프르 링 벨 에프르 캠페리에서 탄생 더 진화되어 거대한 원형과 스캐이퍼 고딕 부분이 호전적인 디자인의 아이코닉한 링, 18K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다이아몬드 링 골드 비즈를 생생하게 보여 경쾌한 디자인도 우아한 감성을 더해 베를리 캠페리의 링으로 18K 핑크 골드 소재 비즈를 57개의 라인으로 엮은 후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1천500만원, 문의 1877-4128 프래드 포스텐 링 브라운의 아이코닉한 포스텐 모티브로 완성한 링으로 부드러운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라지 사이즈 모델이다. 옻색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강조했다. 8백40만원, 문의 02-514-3721 에디터 상정민



GOOD LUCK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벨 모티브 링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라기 세르펜티 세두르**리 애혹적인 벨 머리 모티브의 링으로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루벨라이트로 눈을 표현했다. 1천5백만원. 문의 02-6105-2120 **부세론 세방 보벌 로돌라이트 가넷 투레드** 핑크 골드로 세공해 벨의 비늘까지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2개의 머리는 5.1캐럿의 로돌라이트 가넷으로 완성했다. 7백만원대. 문의 02-6905-3322 **다이아나 에덴** 핑크 골드로 벨을 형상화하고 블랙 세라믹으로 매끈하게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포드그래피 최인영** 에디션 **성영민**



CHARMING DRAGON

로로피아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힘과 행운, 지혜의 상징인 용을 테마로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동양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과 웅 모티브 자수, 장식이 특징으로 베이비 카시미어와 캐시미어 더블, 예코 캐시미어 물리네, 씨아일랜드 코튼 저지 등 메종의 고급 연사로 제작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만나볼 수 있다. 라일락과 핑크 컬러에서 파입 블루와 이브미린에 이르기까지 세련된 파스텔컬러를 입힌 캡슐 컬렉션의 하이리트는 할로나 케이프의 엑스트라 포켓 백이다. 로로피아나만의 노하우로 제작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특별한 캡슐 컬렉션은 1월 6일부터 로로피아나 매장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46-0615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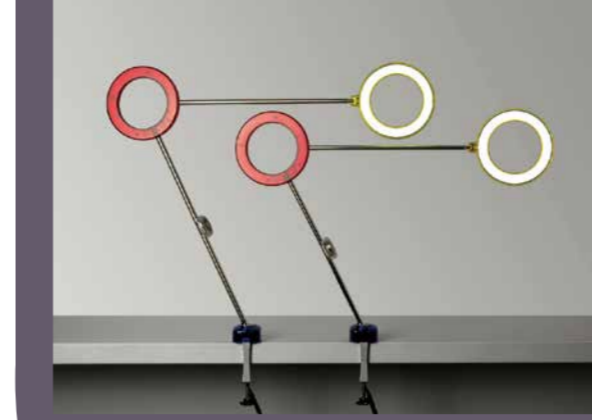
비밀의 시간

반클리프 아펠에서 메종의 대표를 시그니처 아이템이자 새해를 초월하는 루도 스크립트 워치를 소개한다. 다이아몬드 또는 핑크 사피어로 완성한 워치와 옐로 골드에 기묘세를 다룬 새로운 미학의 하이 주얼리 워치로 구성된다. 1930년대 초반까지 여성들이 즐겨 착용하던 벨트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고리 모티브가 특징이며, 2개의 원형 모티브를 동시에 누르면 숨어 있던 기묘세 화이트 마더오브펄 다이얼이 모습을 드러낸다. 새해를 초월하는 우아한 품격을 자신 이 워치는 희소성 높은 하이엔드 피스를 소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문의 1877-4128



NEW YEAR, NEW STYLE

스타일링의 완성, 포인티드 슈즈.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폭신함이 느껴지는 패딩 처리된 양 가죽 소재에 인트레카이토 워플링으로 완성한 하이트 & 그린 미스 칼라의 카탈루냐 필로스 가죽 미장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3439-7682. 숭이거죽에 감도 높은 크리스탈 장식을 더했으며, 힐 디자인이 독특한 크리스탈 레더 부츠 가격 미정 **모스카노**. 문의 02-3448-1340. 디테일한 플로럴 장식에 버블로 장식는 발목 스트랩으로 완성한 하이힐 샌들 3백10만원대 **올레안타 마나**. 문의 02-3442-6888 **포드그래피 최인영** 에디션 **성영민**



책상이나 선반 위에서 분위기와 눈을 동시에 환하게 해주는 '잇(it) 스탠드 조명'으로 이미 알 만한 이들은 다 아는 라문(RAMUN)의 '아물레토(Amuleto)'. 지금은 고인이 된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손자의 눈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만든 스탠드 조명계의 베스트셀러 아물레토가

최근 24년형 클램프 타입을 새로 선보였다. 360도 회전 가능한 짐개를 더해 가구 모서리에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아물레토 클램프(Amuleto Clamp)'는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존 구조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델. 라문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이 제품은 공간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깊도 조절 책상, 책장, 책꽂이, 선반, 얇은 침대 헤드보드 등에 다양하게 고정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스탠드에 비해 공간을 덜 차지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다관절 구조로 작업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벽에 고정 가능해 장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세계 등 유명 백화점과 공식 판매처, 고객센터(1600-1547)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www.ramu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AMULETO CLAMP



더 어려운 피부

또 새로운 해가 밝았다. 그만큼 우리 피부는 한층 더 노화된다. 매년 겨울 앞에서는 것이 두려운 아리엔 화장품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스킨케어 제품이 필요하다. 늘 놀라운 혁신을 보여주는 라프라이에서 획기적인 마스카를 선보인다.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하는 플래티늄 레어 오드-레주베네이션 마스카가 그 주인공. 코팅 프로세스로 허알루론산과 콜라겐 등 유용 성분을 피부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라프라이의 마이크로-인퓨전 기술을 적용해 눈에 띄는 효과를 선사한다.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색 막대 모양의 울트라-포텐트 컨센트레이트를 바른 뒤 크림 단계에서 시그니처인 다이아몬드 모양 용기에 담은 울트라-센스리얼 크림으로 마무리한다. 모두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해 화학 용기는 재활용 가능하며 크립 용기는 리필 가능하다. 올해는 라프라이와 함께 한 살 더 어려운 피부를 만나보자. 0.7ml X 12 + 20ml 2백34만원대. 문의 02-6390-1170

THE NEW ICON



까르띠에에서 메종의 상징적 주얼리 컬렉션인 트리니티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트리니티는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등 3개의 링을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으로 다양성의 가치, 모든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는 까르띠에의 대표 컬렉션. 이번엔 상징적인 링 XL 버전과 XL 브레이슬릿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소재와 특징, 긴밀한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밴드의 형태를 변화했다. 메종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의 기하학적[고도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3개의 사각 링이 서로 미끄러져듯 울타되며 리운드 버전처럼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한다. 이 새로운 디자인의 트리니티 주얼리 컬렉션은 전국 까르띠에 부티크와 온라인 부티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4326

FOR YOU & ME

그라프에서 1WISH 캠페인 론칭과 함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프트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한다. 먼저 18K 로즈 골드 버티클라이 실루엣 파베 핑크 사피어 펜던트. 오랫동안 하우스의 상징적인 모티브로 활용되었던 나비가 유아하연산도 사랑스러운 핑크 사피어를 만나 그라프만의 특별한과 아름다운 모먼트를 선사한다. 특히 펜던트에는 유려한 두 마리 나비의 날갯짓으로 아름다움을 배가해 그대를 위한 로맨틱한 선물을 제작하다. 더불어 남성을 위한 선물로 18K 화이트 골드 소시지 그라프 이터너티 링을 제안한다. 아이콘적인 그라프 로고를 심플하게 새겨 넣고 2개의 다이아몬드로 디테일을 완성해 클래식하면서도 섬세하고 대담한 감성을 전한다. 문의 02-2256-6810



나비의 유혹

다음에서 마법같이 신비스럽고 동화적인 겨울 분위기를 담아낸 특별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미라야 그라피아 차우리가 디자인한 2024 디올 크루즈 컬렉션을 연상시키는 나비 모티브를 골드와 화이트 컬러로 재해석한 것. 모든 아이템에는 두 가지 컬러가 아름답게 수놓여 있고, 정성술을 향한 무수 디올의 열정을 가해 12개의 매혹적인 별자리를 그렸다. 특히 신비로운 정성술에 천사를 보는 정교한 디자인이 백과 우아한 스즈를 화려하게 장식해 하우스만의 서정적인 감성을 더욱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280-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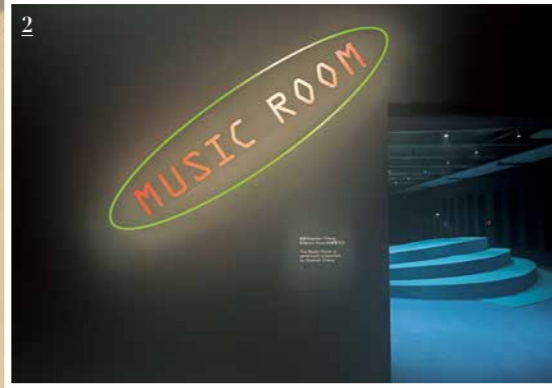


MODERN BLACK

향으로 디자인적으로나 공간의 무드를 180도 바꿔줄 블랙 캔들 리스트. (중요부터 시계 방향으로) **담티크 프라미엄 캔들 라발레 듀 명 탄생** 60주년을 맞아 출시한 새로운 캔들 컬렉션으로 중국 장사성에 위치한 도시 장라에서 유구한 시간 동안 이어온 전통적인 아름다운 향을 담았다. 270g 37천원. 문의 02-3479-6049 **아쿠아 디 파르마 캔들 웨더드 프레스시온** 오코스의 휴 내뿜고 활기찬 시트러스 노트가 만나 아침 산책을 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 향 200g 13천원. 문의 02-6905-3568 **오리신유 비셀 불리 부지 오드메랑 일렉신드리아** 레몬으로 시작해 민트, 진저를 거쳐 바닐라의 부드러운 향으로 마무리되는 향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을 표현한 향 250g 21만5천원. 문의 1544-5114 **비에도 프라그런스 캔들 우드** 숲속을 연상시키는 향으로 디자인하고도 복잡한 나무 구조에 사타우드의 편백향을 더했다. 240g 12만1천원. 문의 02-3479-1688 **포드그래피 최인영** 에디션 **성영민**



타이베이 비엔날레(Taipei Biennial) 2023_〈Small World〉



나와 너, 그들의 이야기... 우리의 화두

흔히 '미술 장터'로 일컬어지는 아트 페어나 각종 문화 예술 축제,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처럼 2~3년 마다 치러지는 국제 미술제를 찾자하면 '산책'이라는 단어를 관성적으로 쓰게 된다. 비엔날레 산책이니 미술 산책이니 하면서 말이다(떨자 역시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날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아트 페어나 미술제는 도저히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동선이 복잡다단하며, 당연히 불거리도 많다. 더구나 직업상 마음 닿는 대로 '산책하듯' 노닐 수는 없다는 강박이 작용하는 경우라면 하루 2만~3만 보 정도는 우습게 소화하게 된다. 나뭇골자서 본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타이베이 비엔날레는 내심 반가웠다.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TFAM) 한 곳에서만 열리는 비엔날레라니. 물론 그것이 방문 이유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단기간의 여정에서는 여기저기 이동하는 데 시간을 소요하는 대신 보다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구도가 장점이라고 다가온다. 그리고 다행히도 타이베이 비엔날레는 먼 길을 떠난 보람을 느낄 만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짧은 여정이지만 이를 계기로 비엔날레가 여전히 '발품'과 '사유'와 '공감'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본다.

사뭇새기 역사를 지닌 비엔날레와 타이베이라는 도시

세계화 흐름에 맞물려 1990년대에는 미술계에서도 지구촌 여기저기 새로운 비엔날레가 많이 생겨났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고, 이 도시를 대표하는 최초의 현대미술관인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TFAM)이 비엔날레 성격의 국제전을 꾸준히 연 선두 주자였다. 그러다가 TFAM은 1998년 현재의 타이베이 비엔날레(Taipei Biennial, 이하 TB)를 선보인 이래 2년 간격으로 치러왔다. 늘 짝수 해에 열리는 이 비엔날레는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많은 글로벌 행사가 맞닥뜨린 운명처럼 '홀췌'이 바뀌어 지난해(2023년) 늦가을 제13회를 개최하게 됐다. TB 2023에 초청받은(또 다른 참여 작가는 양유연이다) 우리나라의 김범 작가가 1998년 당시 참가했고, 이번엔 다시 현

장을 직접 찾았으니 25년만이다. 오는 3월 24일까지 3개월 넘는 여정을 펼쳐가는 TB 2023의 전시 제목은 '스몰 월드(Small World)'. '스몰'이라는 단어는 타이베이라는 도시와도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데, 중의적 표현으로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서로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그리고 반대로 격리의 위협으로 사회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졌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 서로가 밀착적으로 연결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질 수도 없는 '유예된 상태', 다시 말해 가 능성과 위협이 공존하는 딜레마의 세상이랄까. 필자는 이전에는 타이베이 비엔날레에 한 번도 기본 적이 없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엔날레 과잉'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TFAM 현장이 궁금해졌다. 아마도 타이베이의 아트 신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데다 지난

해 봄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TB 2023의 공동 감독인 프레야 추(Freya Chou)를 만나 얘기를 나누다 생긴 호기심도 보태졌던 것 같다. 타이베이라는 도시 자체, 그리고 문화 예술을 둘러싼 콘텐츠들 보면 대개 규모가 방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내실을 갖춘 데다 진중하되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받아온 터였다. '브랜딩' 관점에서 비엔날레의 인지도는 도시 자체의 인상과 매력에도 영향을 받기도, 또 주기도 하지 않은가. 16세기 초 포르투갈 항해자들과의 인연으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모사(Formosa)'라는 별칭을 얻은 대만은 근현대사 궤적을 볼 때 한국과 많이 닮았다.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전쟁과 식민지화, 가파른 경제성장, 민주화의 시련 등의 역사를 볼 때 그렇다. 그런데 대만은 사회문화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2017년 동성혼이 합법화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는 이력이 있을 만큼 진보적이기도 하다. 해커 출신의 30대 장관(디지털 담당)으로 유명세를 단단히 댔던 오드리 탕을 임용한 나라 아니던가(그러나 대만 현지인을 만나면 정치인은 다분히 관료적이고, 정치관 역시 엉망이라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한다).

그들이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시선과 풀어나는 방식

어쨌든 간에 필자가 타이베이에서 접해온 대만의 현대미술도 꽤 파격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컬렉터들의 성향은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시장'이 아닌 미술관의 풍경은 색다르고 진취적인 인상이 주를 이룬다. TFAM은 두말할 것 없고,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타이베이의 또 다른 현대미술관 MOCA 타이베이에서 2017년 열린 〈Atemschaugel〉이라는 작은 전시가 있다. 프랑스 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man)의 제안으로 당시 관장이 직접 기획한 전시로 이른 역사 속 개인과 사회의 트라우마를 다룬 2인전이었는데, 중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미망인으로 베를린으로 망명한 아티스트 류샤



도 3명의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전시 기획을 총괄하다 보니 더 폭넓고 다채로운 면면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다. 다수의 국제전과 전시를 기획해온 프레이 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에디터이자 작가 브라이언 쿠안 우드(Brian Kuan Wood), 연구자이자 큐레이터 림 샤디드(Reem Shadid)가 그들이다. 3인 체제에서 다루는 콘텐츠의 반경이 넓어서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대조된 유산은 전시 작품 간 서로 소통하는 '함'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인상도 받았다(물론 개별 작품은 출중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굳이 구미 지역의 미술계 블루칩 작가, 그러니까 소위 스타 작가를 거의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작가를 소개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여겨졌다(사실 미술계를 떠나면 '스타'라는 명맥은 대중 사이에서는 대부분 힘과 의미를 잃지 않는가). 필자는 '초행'이라 직접 비교할 수 없었지만, 현지 언론의 반응과 여론을 살펴 짐작해보건대 미술관에서 유명세 있는 스타 큐레이터가 진두 지휘하지 않고 대만과 그 주변 지역들의 작가를 고심해 아우른 자본화적 정체성이 느껴진다는 호평이 눈길을 끈다.

워드 코어 비엔날레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순간들

미술관 3개 층에 걸쳐 펼쳐진 전시의 핵심이 되는 매개체가 '음악'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타이베이 아트 신 특유의 매력과 맞닿는 지점이기도 하거나, 설명적이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스며들어 대중,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효과를 내지 않나 싶다(이번 비엔날레 작가 명단에는 50여 명의 다국적 현대미술가와 뮤지션이 올라 있다). "음악, 그리고 음악에 다가가는 여러 방식은 비엔날레에서 다루는 이슈를 생각해보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portal) 역할을 한다(비엔날레 공동 감독 프레이 추)"는 설명과 함께 감상은 물론 연주, 퍼포먼스, 청음 등의 프로그램을 꾸리는 '뮤직 룸(Music Room)'이 비엔날레 전시장에 넓게 터를 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마치 커다란 쿠션 같은 설치물에 눕거나 앉아 있노라면 작가들이 나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 편견을 깬다면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주제에 다가간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예컨대 고도의 '테크노 지배당하는 사회에서의 혼란'이라든지 성 소수자를 비롯해서 여러 의미에서의 소수자 문제 같은 것들이다. 아무래



래층에 놓인 틀에서 선보인 베를린 거주 작가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Natascha Sadr Haghghighian)의 세션은 누군가를 보살피는 '돌보미' 역할을 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DJ와 뮤지션이 나와 색다른 음악과 예술의 세계를 공유하기도 했다. 어쩌면 청중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이는 트랜스젠더 DJ로 명성 자자한 DJ 스프링클 스였을 것 같다. 남다른 음악성과 개성으로 탄탄한 팬덤을 거느렸지만 1년에 몇 차례밖에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그녀)가 비엔날레 작가로 초청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화제였지만, 워낙 달변이다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세계관을 스텝만큼 털어놓는 솔직함이 흥미로웠다. 물론 팬이라면 전시와 별도로 미술관 내에서 DJ 스프링클스가 몸소 펼쳐 보인 심야의 디제잉에 빠져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더 환호했겠지만 말이다(실제로 음악도 좋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최예'의 순간은 80대 후반의 작가 사미아 할라비(Samia Halaby, b.1936)와의 만남을 꼽아야 할 것 같다.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출신 작가인 그녀의 전시를 두바이에서 우연히 보고는 직접 만나지는 못한 채 현지 필자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제 3국의 도시인 타이베이에서 대면한 것이다. 우이천 서정미 깃든 추상회화도 그리지만, 컴퓨터 작업을 기반으로 한 키네틱 페인팅을 수십 년에 걸쳐 해온 개척자. 놀랄 정도로 사진에서 본 모습 그대로인 그녀는 팔레스타인 작가로 살아온 데 대한 '한을 구구절절 풀어내기보다는(현재의 정세에 분노는 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시대 뮤지션과 협업하고, 나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저항의 퍼포먼스를 한다는 얘기를 신나게 이어갔다. 그녀가 고령에도 타이베이를 찾은 이유는 다름 아닌 키네틱 페인팅 작업을 활용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뮤직룸'에서 선보이기 위해서였다. 세상의 고민 따위는 툭툭 털어버리고 흥겹고도 진지한 행보를 이어가는 80대의 창조혼을 '느끼는 것'이랄로 비엔날레 현장의 참모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 **고성현**

1 대만 작가 양치추안(Yang Chi-Chuan)의 Your Tears Remind Me to Cry(2023) 설치 모습. TB 2023 커미션 작품이다. 2 TB 2023에서는 '음악이 주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감상은 물론 연주, 퍼포먼스, 청음 등의 프로그램을 꾸리는 뮤직 룸(Music Room)'이 마련돼 있다. 3 프레이 추,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꾸민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TFAM) 지하 2층에 있는 뮤직 룸에서 토르 세션을 가진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Natascha Sadr Haghghighian, 베이루트/테헤란) 작가의 사회적, 청각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4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 Watershed, 2023, Sound installation, PVC sculptures and transducers, dimensions variable (6 pieces), Commissioned by Taipei Biennia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by Max Schneider. 중화권의 오래된 핸드북을 배경으로 미술관 안뜰을 수놓은 6종의 시온드 조각으로 구성된 Watershed는 타일 케어레이퍼(Caretaker)에게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는 TB 2023 커미션 작품이다. 어떤 빛물라스 시온드(정신병에도 아성이 외우를 떠돌리게 하는 연모를 자넨다. 5 TB 2023 개막을 축하하는 여러 행사 중 17일 밤에는 TFAM 건물 안에서 대형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세계적인 DJ이자 이번 비엔날레에 아티스트로 참가해 토르 세션을 가지기도 한 DJ 스프링클스의 안가기 압도적이었다. 6 김범(Kim Beom), Spectacle(SM), 2010, Single-channel video, 1 min, 7 sec, loop.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ipei Fine Arts Museum. 지난해 8월기 리움미술관 개관식에도 선보인 영상 작업. 영상이 차타를 속도감 있게 쫓고 있는 모습을 담은 화면은 포식자와 피식자, 강자와 약자의 뒤집어쓴 관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당연하는 상대적 위상을 끊임없이 만든다. 7 TB 2023에 참여한 한국 작가 2인 중 한 명인 양유연 작가의 회화 작업. 양유연은 2022년 파주비엔날레의 국제 전시 카키기안테세에 초청되고 지난해 봄 프랑스 서울에서도 작품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다(1989년생). 8 나심 아바스(Nadim Abbas), Pilgrim in the Microworld, 2023, Mixed media installation with construction sand, galvanized steel, pigment dyed water,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ipei Fine Arts Museum. 정교한 '샌드박스'로 이뤄진 설치물에 미니처더 디오라마의 이력을 접목했다. 인간의 인지 영역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는 미니처더 모형과 모델링 등의 기술을 잘 활용하며, 뮤지션이기도 하다. 9 1936년생으로 80대 후반인 사미아 할라비(Samia Halaby)의 키네틱 작업.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아랍 대미국으로 이주한 장르는 키네틱 기반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치고자 알리 뉴욕에서 타이베이까지 왔다. ※ 1~5, 7~9 Photo by 고성현



9



가장 사적인 '취향 페어링'을 찾아서

요즘 가장 흥미로운 문화가 뒤섞이고 있는 곳은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아닐까. 가장 사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공간에서는 특별한 '취향 페어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간이 특정한 작품과 만나면서 혹은 개인의 삶에서 비롯된 물건과 조우하면서 일으키는 짧은 정적은 묘한 낭만을 선사한다. 프랑스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장 프루베가 자신의 딸을 위해 만든 '시테 데스크'를 '나의 컬렉션'으로 만들기 위해 옥션을 가웃대거나, 나만 알고 싶은 신진 작가의 작품 한 점을 최초로 소장해 걸어두고 나와 작품 사이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것 등 다양한 예술 풍경으로 둘러싸인 '취향의 방'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멋진 주택을 개조해서 브랜드 쇼룸이나 갤러리로 쓰는 것은 물론 실제 거주자의 공간에서 사랑스러운 아트 페어링을 보여주는 '리빙룸'이 우리의 새로운 '취향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다. 당신은 어떤 리빙룸을 꿈꾸는가?



사적 공간에서 누군가의 취향을 알게 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나 위스키로 취향을 알기도 하지만, 상대의 침대 머리맡에 둔 특별한 작품이나 의자 한 점을 보았을 때야말로 진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만든 미스 매지 취향을 확인했을 때 말이다. 공간의 무드로 캐릭터의 성격을 알 수 있었던 영화 <아이 엠 러브>와 <하우스 오브 루카>의 이름다움을 완성하는 집이랄까 흉내 내지 않는 취향 페어링이 담긴 곳. 밀라노에서 가장 이름다운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빌라 네기 캄필리오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네기 캄필리오 부부가 1930년대 가구부터 파우스, 모딜리아니, 마티스 등 20세기 걸작을 이루는 공들인 컬렉션으로 빛나는 공간이다. 모든 요소에 자신들의 취향과 로망을 발로에 미운듯 구현한 그들처럼 최근 사적인(혹은 브랜드 차원의) 공간에 대한 '취향 페어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멋진 공간과의 취향 페어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관점으로 선택된 디자인 가구부터 아티스트의 작품, 비무에 두는 소품 한 점까지 페르소나를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가구와 아트 컬렉션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예우적으로 선보이기도 했던 <독일 미강의 저자 박산영>은 '남들이 다 알아보는 아이템이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취향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독일 전역을 헤매며 특별한 리빙룸이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요즘의 사적인 공간에는 그처럼 삶의 방식과 취향에 따라 각자만의 예술적인 이야기가 담겼다. 얼마 전, 관점이 남다른 리빙 편집숍 마이아레의 우현미 소장이 실제 거주했던 이태원의 한 주택이 마이아레의 취향과 함께 색다른 문화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녀의 취향을 실재로 느낄 수 있는 리빙룸이라는 공간인데, 좌식 문화와 유럽의 노매드 라이프를 매치한 공간부터 식물로 가득한 연구소를 보는 듯한 가실, 빈티지 가구를 사랑하는 애호가 공간 등을 취향별로 배려했다. 원오 디바리엔스에서 공수한 사블로트 페어링의 변주도 볼 수 있고 뉴욕의 시카에

술가 브라이스 와이머의 작품과 아키텍트 에디션의 라이언 랜더 등 마이아레가 수집한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듀오오엔코에서는 remastered라는 콘셉트로 사육 내부를 새 단장해 선보였는데, 럭셔리 리빙에 대한 영감을 주는 실용적 공간이 눈에 띈다. 지하 3층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욕실 부스를 중심으로 욕실 문화의 다양함을 보여주며, 지하 4층에는 개인 모임부터 팝업 스토어까지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탄생시켰다. 독일의 주방 가구 회사인 해커도 최근 해커 하우스를 선보이며 주방 가구부터 리빙룸, 워크인클로젯 등의 공간을 꾸며 매력적인 테일러 메이드 공간을 선보였다. 상아송라이터의 취향이 전사와 공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안테나+가 LG아트센터와 함께 '클럽 아크 with Antena'라는 특별한 기획을 내놓았는데, 전사와 콘서트를 결합해 아티스트들의 취향을 친구처럼 보여준다. 장화형, 루시드, 박사별, 윤석철, 이진아, 샘김 등 6명의 상아송라이터가 좋아하는 책, 직접 쓴 악보와 가사, 사랑하는 반석수, 직접 사용하는 파노 등을 가져와 가실 형태로 꾸미고, 관객들은 그 가실을 바라보며 공연을 즐긴다. 죽음연주 실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 윤석철은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전자파노를 들고 나와 마치 거실에 함께 있는 것처럼 위스키까지 마시면서 연주했는데, 아티스트의 일상과 취향을 함께 느끼면서 공연을 보는 건 색다른 감동을 일깨우는 경험이었다. 지난해 출간된 가이 대보트의 저서 <스탈리프(Still Life)> 박산영 역, 을 유문화(사)에는 이런 글이 있다. "정물(Still life)은 일상생활이나 개인의 삶에서 온 물건을 다룬다.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골라 어떤 표면 위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정적이 생긴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시간이 멈추는 듯하고 이는 오히려 명상적 상태를 낳는다." 사랑하는 것을 곁에 두라, 사랑하는 소유하려는 건 이 책의 반역가이자 갤러리스트인 박산영이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월 사항일지, 소유란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 우리는 취향을 기르고 가장 사적인 공간에 예술을 둔다. 약간의 미완성인 채로, 그 모든 중심을 나와 향의 이야기'에 둔다면 우리의 매일은 조금 더 반짝일 것 같다. 글 김수진(프렌즈 에디터, 디블렌트 CD)

1 마이아레 리빙룸은 지난 11월 중순, 공간을 온전한 채로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존 케이지가 1940년에 작곡한 'Living Room Music'의 총 4인용 구성(begin, story, melody, end)에 착안해 가실의 다양한 사물을 타악기처럼 사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2 리빙룸은 마이아레의 우현미 소장이 실제 거주하던 곳으로, 앞으로 이곳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거나 재밌는 콜라주를 여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3 1930년대 이탈리아 상류층의 생활을 볼 수 있는 빌라 네기 캄필리오에는 정원부터 수영장, 인테리어, 가구, 정원, 샹크까지 모든 요소에 네기 캄필리오 부부의 취향을 구현한 곳이다. 현재 이탈리아 문화 예술 재단 FAI의 관리 아래 대중에게 미술관처럼 공개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 4 독일 조각가 헤르만 로자의 아틀리에, <독일 미강의 저자 박산영>은 책에서 헤르만 로자의 아틀리에를 발견하는 여정을 특별하게 소개했다. 그녀는 독일의 미강 속에 자리한 예술의 본질을, 목표를 여행하며 만난 다양한 공간, 사람, 사물로 돌아왔다. 5 지난해 후반기에 듀오오엔코는 럭셔리 리빙에 대한 큐레이션을 다양하게 제안하는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타일로 재질된 다이닝 테이블, 아일랜드, 타일을 이용한 수납장 벽면 구성 등을 듀오오엔코만의 감성으로 제안하는 공간이다. 6 안테나+가 LG아트센터와 함께 특별한 전시를 선보였다. 아티스트들의 빛의 모습은 전사로, 빛의 모습은 관객과 리빙룸을 즐긴다는 콘셉트로 진행했다. 아티스트들의 취향을 눈앞에서 느끼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기획이었다.



The art of jewelry

매종의 취향과 미학, 그리고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전시 <반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은 작년 11월 시작해 올해 4월까지 이어진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브랜드의 '속 깊은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터. 반클리프 아펠 코리아 지사장 프레데릭 레벨로(Frederic Rebelo)를 만나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반클리프 아펠 코리아 지사장으로서 이런 대규모 전시를 서울에서 선보이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아직 방문 전인 독자를 위해 전시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우선 이 훌륭한 전시를 한국에서 선보이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고, 이후 코로나 시기에는 중국에서,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최했습니다. 서울이 네 번째 장소죠. 전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906년 파리에 탄생한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담은 3백여 점의 패트리모니얼 컬렉션 및 개인 구매자이자 고객들의 진귀한 오브제, 그리고 1백여 점의 아카이브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카이브에는 문서, 스케치, 창작 첫 단계의 아이디어를 담은 구이슈 스케치 등이 포함되어 있죠.

반클리프 아펠은 한국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5월 서울 메종 오픈에 이어 올해 1월에는 DDP에서 <사랑의 다리에서 마주하는 시간의 서사시> 전시를 열었죠. 이번 패트리모니얼 전시를 통해서도 한국 방문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느 공간의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이번 전시를 통해 방문객이 저희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와 전시된 창작물을 감상하며 고유의 장인 정신을 느꼈으면 합니다. 또 소중한 삶에 대한 매종의 서정적인 비전이 전달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용' 공간에 있는 발레리나 클립이예요. 매종에서 최초의 발레리나가 탄생한 1940년 이후로, 이 여성스러운 모티프는 반클리프 아펠의 아이코닉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로즈 컷 다이아몬드, 스톤 세팅까지 적용해 각 발레리나의 서로 다른 서정적인 자세와 표정을 표현하는데, 이를 통해 매종만의 노하우를 설명하려 합니다.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명품 시장도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요? 반클리프 아펠 특유의 장인 정신과 표현력은 매우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변동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고객의 취향과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아웃 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트래픽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죠. 이번 패트리모니얼 전시 다음에 또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스타일 조선클럽> 독자님께 미리 알려드릴 수 있나요? 올해도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반클리프 아펠의 모든 활동은 매종의 뿌리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삶에 대한 서정적인 비전으로 초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팀은 드릴 수 있겠네요. 글 정민호

1 네온 컬러 빛을 활용한 요한나 그라우더의 글라스 조각 작품. 2 반클리프 아펠 코리아 지사장, 프레데릭 레벨로. 3, 4 시간, 자연, 사랑으로 나눈 각 공간은 테이블에 맞는 작품과 조명 연출로 스토리텔링했다.



반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 (Van Cleef & Arpels : Time, Nature, Love)

작가이자 교수 알바 카펠리에리(Alba Cappellieri)의 큐레이팅으로 완성된 전시는 크게 세 가지 공간(시간, 자연, 사랑)으로 나뉜다. 그중 이태리 작가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의 <다음 천국을 위한 여섯 가지 메모(Six Memos for the Next Millennium)>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차용해 매종 작품과의 연관성,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를 해석했다. 첫 번째 공간인 '시간'에서는 파리, 마넨 곳, 파센, 무용, 건축 등 열 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 작품을 소개하고, '자연'에서는 식물과 동물을 통해 표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공간에서는 사랑의 상징성과 마음을 담은 선물로 구현된 작품을 선보인다. 여기에 건축 디자이너 요한나 그라우더(Johanna Grawunder)의 빛 연출까지 더해 각각의 공간은 신비롭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감쳐흐른다. 그레이스 켈리의 티아라,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윈저 공작 부인의 자프 네크리스 등 주얼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전설적인 작품까지 볼 수 있는 기회. 하이 주얼리 매종의 세계를 선보이는 이 전시는 4월 14일까지 디뮤지엄(D Museu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877-4128

블랙 세라미과 스틸로 완성한 가장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워치로 지름
38mm 케이스를 갖춰,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통일감을 부여했다.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인 칼리버
J12.1로 구동하는 J12 워치 칼리버 12.1
38MM 1천1백40만엔대 샤넬 워치.



Perfect Time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독보적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더해 완성한 J12.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샤넬 클래식을 완성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지름 33mm 블랙 세라미과 스틸 소재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로
화려하고 우아한 감성을 더했으며,
인디케이터 역시 다이아몬드로 마무리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부각한 J12 워치 33MM
1천1백20만엔대 샤넬 워치.





지름 38mm의 견고한 블랙 세라믹 소재 케이스에 스틸로 마무리하고 다이아몬드 인디케이터를 매치해 우아함을 더했다.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칼라버 12.1로 구동하는 J12 칼라버 12.1 38MM 1천3백70만원대 **사넬 워치**.



J12의 구조를 더욱 강조하는 입도적인 블랙 세라믹 소재에 옐로 골드 컬러 포인트를 세련되게 매치했다.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칼라버 12.1을 장착했으며, 18K 옐로 골드 스커루-다운 크라운을 완성해 럭셔리함을 배가하는 J12 워치 칼라버 12.1 38MM 2천2백60만원대 **사넬 워치**.

지름 33mm의 견고한 화이트 세라믹과 스틸을 조합한 케이스에 화이트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깨끗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부여했다. 사철 워터메이킹 노리우를 접목해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칼리버 12.2를 장착한 J12 워치 칼리버 12.2 33MM 1천889만원대 **사철 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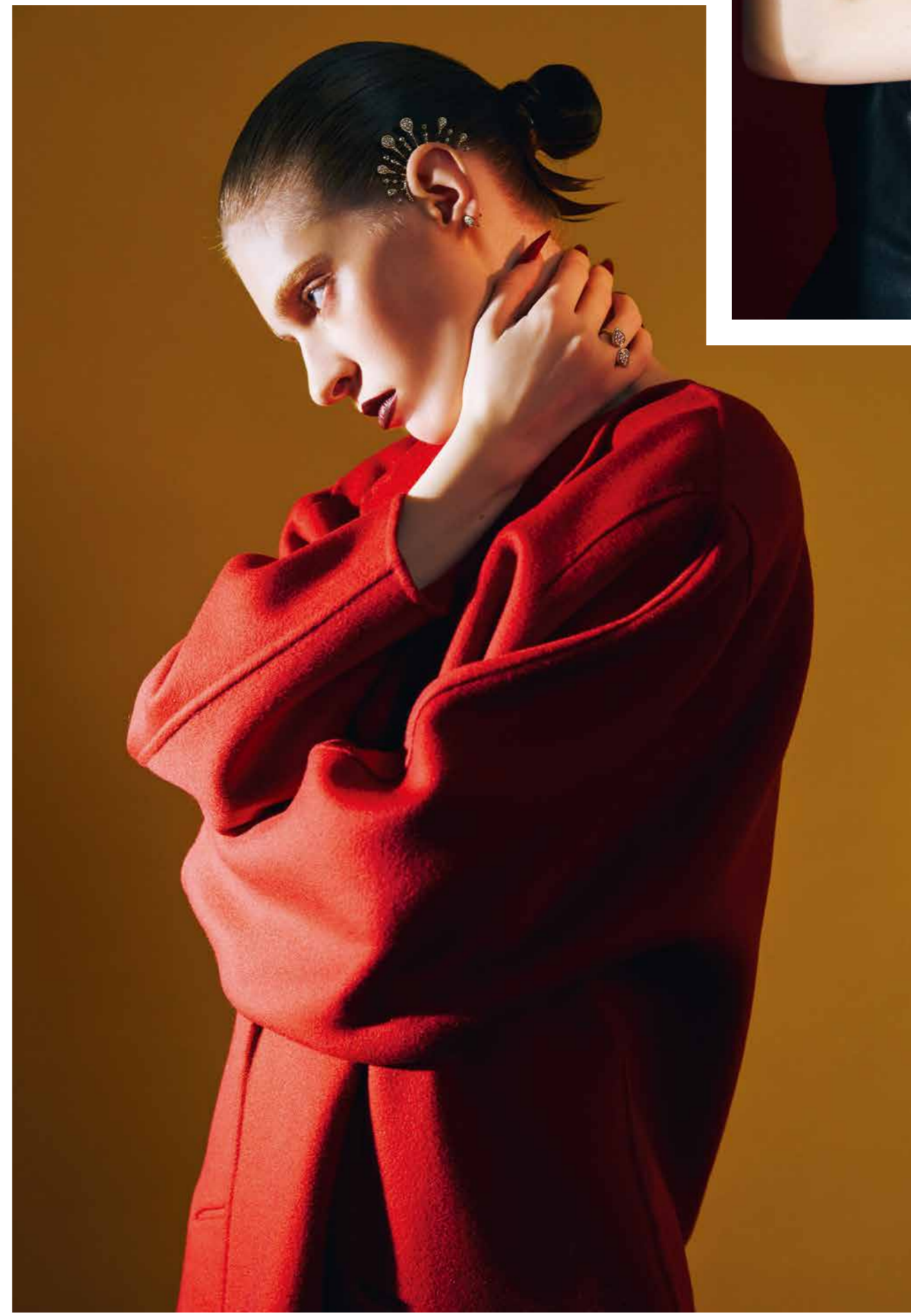
화이트 세라믹과 스틸 베젤에 화이트 라커 다이얼을 매치하고 중앙에 마드모아젤 사철 일러스트를 담아 워치를 더한 마드모아젤 J12 라 퍼우저 워치 38MM 1천499만원 **사철 워치**,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에디터 **상정민**

Lady in Red

새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붉게, 더 붉게 타오를 것.
 photographed by Lee dam bi

톤 다운된 레드 컬러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담은 실크 소재 드레스 8백44만원 **에르메스**. 핑크 골드 0.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포인트를 준 브이 드 로즈 이어링, 장미 줄기를 형상화한 듯한 디자인의 18K 핑크 골드 소재 중앙에는 0.5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길이에 긴 18K 옐로 골드 소재에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2원각적으로 세팅한 브이 드 로즈 링, 약지에 긴 18K 핑크 골드 소재에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이 드 로즈 링 모두 가격 미정 **다움 피안주얼리**. 직사각형 옐로 골드 케이스 양쪽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그 안에 정사각형 천연 자개 다이얼을 매치해 모던한 세련미를 더하는 케이프 코드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카린 매들 리본과 옐로 옐아치는 드래프트 디테일이 포인트인 블랙 가죽 소재 드레스 9백50만원 **알렉산더 맥퀸**. 길이에 긴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데미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퍼 링 4천500만원, 약지에 긴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퍼 2코일 링 2천3백40만원, (옐로 옐 맨 우퍼)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퍼 브레이슬릿 4천3백20만원,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바이퍼 브레이슬릿 9백50만원 모두 **불가리**.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볼드한 T 모티브 밴드 가양밴드를 부여하는 티파니 T1 와이프 한츠드 밴글,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한 티파니 T1 내로우 하프 다이아몬드 한츠드 밴글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옐로 옐 맨 우퍼)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한 티파니 T1 와이프 하프 다이아몬드 한츠드 밴글 가격 미정 **티파니**,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퍼 2코일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로즈 골드에 양 끝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데미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세르펜티 바이퍼 브레이슬릿 1천4백50만원 모두 **불가리**.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프릭스케 케시미어 소재의 레드 코트 1천3백15만원 **더 로우**. 태양의 광채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18K 옐로 골드 소재에 총 0.99캐럿의 68개 리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행 보렘 슬라피페 비대칭 스타드 이어링 1천1만원대, 2개의 드롭 모티브 옐로 골드 소재에 총 0.67캐럿의 16개 리운드 다이아몬드와 골드 비즈로 장식한 세행 보렘 더블 모티브 링 9백만원대 모두 **부세론**.



신축성 있는 조젯 패브릭 소재의 유려한 드레이핑 플리츠 네크라인이 돋보이는 보디슈트 1백51만원, 평한 레드 컬러와 사묘한 포인티드 토가 특징인 슬링백 새틴 펌프스 1백66만원 모두 **베르사체**, 플리워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4.8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와일드 플라워 장鍊선 패베 다이아몬드 롱 네크리스 가격 미정 **고르보**, 견직한 블랙 세라믹 소재의 지름 38mm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18K 옐로 골드로 베젤과 크라운을 장식해 클래식한 리치미를 완성한 112 워치 **킬리버** 12.1 33MM 2천2백60만원 **사블 워치**, 감자에 긴역동적인 해성의 이미지를 표현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센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멧 플라스 다이아몬드 슬로 링 가격 미정 **타사키**, 약자에 긴이(근)난 숫자 5를 형상화한 19K 화이트 골드 소재에 0.2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7개를 세팅하고 총 0.27캐럿의 19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터널 N5 링 1천3백80만원 **사블 화인 주얼리**.

에디 슬리만만의 실루엣으로 완성한 블랙 아세테이트 소재에 트라몽프 로고를 더한 트라몽프 12 신물라스 69만원
셀윈드 바이 에디슬리먼, 실루엣이 비쳐 보이는 독특한 소재의 비스코스 저지 플, 와이드 핏의 코트 소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매종 마르자엘라, 레드 컬러의 양가죽 소재 사이먼 가죽 장갑 2백22만원 **더 로우**, 뽀족한 토 디자인이 돋보이는 페이퍼트 가죽 소재의 슬링백 가격 미정 **고르보**, 뭉툭 모티브로 한 모던한 형태의 핑크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패베 세팅한 팬던트 네크리스 1천만원대, 옐로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골드 타장 광선 모티브의 다이얼을 매치한 탱크 프랑세즈 워치 미디어 모델,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자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옐로 골드로 모 모티브를 완성한 자스트 앵 글루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왼쪽 감자에 긴 핑크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자스트 앵 글루 링 1천4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플라스틱 및 나일론 혼방의 스트레치 새틴 톱, 울 소재에
 허리 양쪽에 큐빅 포인트를 다한 롱 울 새틴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프리카다**. 민가한 크리스마스 로즈를 기념하는
 플라워 모티브로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카탈리언
 스톤으로 완성한 로즈 드 노엘 클립 펜던트 미디엄 모델
 2천7백30만원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반트지 알함브라
 주얼리 컬렉션의 네크리스로 총 20개의 카탈리언과 18K
 옐로 골드 비즈로 완성한 네 일 클로버 모티브를 다한 반트지
 알함브라 롱 네크리스 2천3백10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각 장한 실루엣이 멋들어진 파워 슈더 타탄체크 재킷,
 캐시미어 소재의 그레이 정교 슈트, 오파카와올,
 모헤어 소재의 타탄체크 패턴 엑스트라 롱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풍부한 곡선미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영감을 준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닉한 후프 귀걸이, 다채로운
 모양의 총 시아 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불륨감
 있는 디자인과 직육각이 특징인 18K 로즈 골드 소재
 이코닉한 링 모두 가격 미정 **포펠라토**.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네일 **최지숙**
 모델 **Diana Bokova**(Jennifer Model)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성정민**



에르메스,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생 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더 로우 02-6911-0749
 부채번 02-6905-3322
 베르사체 02-3479-1294
 그라프 02-2256-6810
 타사지 02-3461-5558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080-805-9628, www.chanel.com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엔 1577-8841
 매콤 마르자렐라 02-772-3234
 프리다 02-3442-1830
 까르피에 1877-4326
 포펠라토 02-3143-9496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불가리 02-6105-2120
 티파니 02-6250-8620
 돌체앤가버나 02-3442-6888
 쇼에 02-3442-3359



코르셋 뷔스티에 실루엣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의 새틴 소재
 미드카프 드레스 4백45만원, 새틴 소재의 레드 롱 글러브 62만원,
 페이턴트 가죽의 스트랩 샌들 1백40만원 모두 **올레안가버나**.
 미러 플리싱 처리한 로즈 골드 소재에 직경 45mm 비다이아몬드
 이어링 7백만원대, 오른손에 긴 핑크 골드 소재에 0.43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비다이아몬드 링 6백만원대, 핑크 골드
 소재에 1.88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비다이
 아몬드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왼손에 긴 핑크 골드 소재에 0.21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14개 세팅한 비다이아몬드 링 3백만원대,
 핑크 골드 소재에 0.94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13개 세팅한
 비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왼 유티타) 옐로 골드 소재에
 0.18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12개 세팅한 비다이아몬드
 펜던트 4백만원대, 핑크 골드 소재에 1.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개를 세팅한 비다이아몬드 펜던트 1천만원대, 핑크 골드
 소재에 0.2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4개를 세팅한
 비다이아몬드 펜던트 8백만원대 모두 **쇼에**.

Prestige Class

컬러가 주는 힘, 골드 패키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럭셔리함은 하이엔드 스킨케어의 존재감을 극대화한다. photographed by oh hyeon sa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리앙스 프레스셔스 라 크렘 드 리슈** 1년 동안 품고 있던 에-치를 모아 단 하루만 활짝 피는 무리외의 생명을 담은 크림으로 피부에 풍부한 탄력과 에-치를 부여한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벨벳 텍스처와 저렴한 프랑스 조형가가 만든 감각적인 우디 마스크 향이 럭셔리한 리추어를 돕는다. 50ml 46만원대. 문의 080-542-9062

샴티이 24K 골드 세럼 인텐스 강력한 골드 성분인 24시간 동안 에-치를 총 3배에 도달시키고 눈부신 광채 피부로 가꾼다. 정밀한 자동 로딩 도르기를 장착해 캡 부분을 살짝 비틀면 최상의 1회 사용량이 추출된다. 농밀한 텍스처와 빠른 흡수력이 일품. 30ml 70만원. 문의 070-4370-7511

다올 프레스셔스 필 수브랑 농축된 로즈 수브랑 엑스추트를 담은 오일 세럼. 끈적이지 않거나 오일코이지 않은 텍스처로 촉촉하고 빠르게 스며들며 매일 또는 한 달간 집중 트리트먼트로 사용하면 한층 매끄러운 피부를 만날 수 있다. 30ml 40만원대. 문의 080-342-9500

발몽 오일 세럼 미세스티오 발집 추출물의 영양과 회복력을 담은 오일 텍스처의 프리미엄 세럼. 97%의 천연 생분을 함유해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법 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빠르게 스며들며 핵심 생분을 피부에 깊숙이 전달한다. 30ml 66만원대. 문의 070-4352-5203

사슬리 수프리미어 앳 나이트 더 수프리미어 에-징 스킨케어 밤사이 피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피부 세포의 작업을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탄생했다. 자기전 비드르 다음 날 아침 목 싯 도 피부가 환해 보이고 앳오프라워처럼 더욱 탄력 있어지는 앳에-징 세럼. 50ml 95만원. 문의 080-549-0216

사슬 수프리미어 텍스처 드 크렘 바닐라, 플라보노이드, 폴리머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8원리인 스위치아를 담아 피부 표면의 안을 강화하며 리피어 효과를 선사하는 회복 크림. 피부에 잘라내고 에-치를 채워 탄력과 광채를 되찾아준다. 50g 79만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골레드브 보메 라 크렘 드 8세 피부 회복 능력을 강화하는 세라미드 추출물과 탄력을 보충해주는 아이시스 프렌드나 추출물 등을 함유한 앳에-징 크림. 부드럽지만 전혀 무겁지 않은 텍스처가 피부를 유연하게 강하게 강건시키고 럭셔리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50ml 116만원대. 문의 080-564-7700

보아레 인퓨저 데너트리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 피부를 유연하게 만드는 첫 단계 세럼. 독자적인 생분을 조합한 레-제리 콤플렉스를 정제해 피부에 필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 기능을 정상화하고 생기를 회복시킨다. 40ml 26만원. 문의 02-310-5025 에-티어 생장원

editor's Pick

신년을 맞이해 뷰티 서랍장을 바꿔줄 베스트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오드타입 유트 슬릭 아이 팔레트 M735** 아-센트 케이 서프스 워트면서 20가지 노-까지는 메이크업을 즐겨 하는 팬이러 눈꺼풀에 더할수록 투명하게 얹어주는 컬러 레이어들이 마음에 들었다. 대부분 밀린 잠이 갈라지는 밤색시 텍스처가 미묘한데 저렴한 유트 톤이 더러워 메이크업으로 재적이고 컬러 팔레트 구색해로, 세이징, 하이라이팅 등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다. 9g 302만원. 문의 1544-7199. by 에-티어 생장원

다올 뷰티 루즈 다올 사틴 파-쉬 #999 다올 뷰티에서 신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컬러와 벨벳, 사틴, 사틴 밤 등 세 가지 파-쉬의 루즈 다올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부드러운 텍스처로 입술에 매끄럽게 발리며 볼륨감과 탄력을 선사하는 사틴 파-쉬 #999는 세라틴 레드 컬러로 발색은 물론 지속력 또한 우수해 만족스러웠다. 3.5g 59만원대, 리필 3.5g 47만원대. 문의 080-342-9500. by 에-티어 생장원

조르반스 밍고 타이 리밍 홀 컨틀 하얀 모래사장과 깨끗한 라틴 시트, 시원한 물결이 반짝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향. 달콤한 망고의 향이 마치 태국의 휴양지로 온 듯한 기분을 준다. 왁스 위에 만자가 생지 않도록 은색 유리 마개를 함께 제공하며, 무려 40시간 정도 연소시킬 수 있는 넉넉한 양이다. 185g 1029만원. 문의 1644-4480. by 에-티어 생장원

다비샤 에-치아-징 씨크닉 톤 건조하고 굵아지는 모발이 늘 고민이었다. 건조한 모발을 위해서는 뿌리인 두피 관리가 중요인데, 이 제품은 연한 투피를 케어해주는 톤으로 힘 없는 두피를 케어하고 모발까지 풍성하게 가꿔준다. 뿌리는 타입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끈적임이 없어 만족스럽다. 100ml 725만원. 문의 1644-4480. by 에-티어 생장원

폴리샤이스 리지스트 배리어 리피어 장벽 크림 겨울바람을 맞고 들어온 날에는 건조한 것은 물론 각질까지 올라와 피부 건조선을 회복하기 힘들었다. 0월 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세라미드, 글리세롤, 자황산 성분들이 들어 있는 이 크림을 아침저녁으로 발라주니 피부 속 땅김과 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촉촉한 재향으로 흡수력도 빨랐다. 50ml 524만원. 문의 1661-6666. by 에-티어 생장원

에스티 로더 퓨처스킨 스킨 틴트 세럼 파운데이션 매일 무거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피부 톤을 간단히 보정하고 싶을 때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 매우 가벼운 포뮬러로 피부가 부담스럽지 않게 딱 튼 보정만 돕는다. 85% 스킨케어 생분을 담아내서 매일 사용해도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다. 30ml 102만원대. 문의 02-6971-3212. by 에-티어 생장원

푸에이아 1833 무스카라 페로 제이 오드퍼플 1회 생산 시 제품이다 1천 병 이하로 수량을 한정하는 이브렌드나 나지 향수 브랜드 향수. 병에 생산 연도와 고유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 좀 더 특별한 느낌이다. 무스카라 페로 제이는 차를 분사하면 향발성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 후 사사히 잔잔한 마스크 향이 남는다. 100ml 48만원. 문의 1800-5700. by 에-티어 생장원

사슬 레드 캐주얼 라피어블라임 마스크 진짜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인 어느 날, 나를 위한 케어로 마음을 풀어보자 얼굴에 이 제품을 얹어 며칠 써봐. 10분 지나 따뜻한 물로 헹구니 피부가 즉각적으로 보드랍고 촉촉해진 것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까지 유지되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향은 덤. 50g 12만원. 리필 50g 10217만원. 문의 080-805-9638. by 에-티어 생장원

리뷰르즈 나우시 페이스 마스크 자친 피부를 위해 백을 하는 시간이 늘 늘었는데, 오 바-이트 슬리핑 백으로 닷야날 필요 없이 더욱 자주 쓰는 뷰티템. 귀리 버터, 세라미드, 식물성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에 에-치와 탄력을 부여한다. 아울러 UV 차단 기능을 갖춘 유라벳을 사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다. 50ml 9217만원. 문의 1644-4480. by 에-티어 생장원

달바 화이트 트라몰 파스트 이몰리틱 스프레이 세럼 8% 스프레이 타입으로 간편한 사용과 뛰어난 보습 효과로 유명한 달바 스프레이 세럼이 업그레이드되었다. 다비샤 크 장미꽃수에 달바 독자 성분 '트라몰'과 달바-8 블랜딩 오일을 추가해 보습력을 강화한 것. 토너와 미스트, 세럼, 에센스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고 수분 수분을 증진할 수 있어 비싼 약제들의 애정량이 될 듯. 70ml 302만원. 문의 070-7714-8428. by 에-티어 생장원

발다롬 브라이샤스 모이스처라이저 수분 장벽 생성에 초점을 맞춘 크림으로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있어 알싸하다. 향이 강하지 않으며 유분이 없어서 크림에 꼭 일 한두 방울 섞어 바르는 국산성 에-티가 사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세심한 자연 유래 재향을 띠었다. 50ml 52만원. 문의 02-515-2229. by 에-티어 생장원

리뷰르 UV 프로텍션 밤 에-티가 상수 구비해준 뷰티 아이템이다. 최고의 노화 방지 솔루션은 자외선 차단이라 믿고 있는데, 이 제품은 외출했을 때 메이크업 위에 계속 바르기에 제격이다. 화장이 밀리지 않을뿐더러 소프트 피우더의 스텝으로 보습보습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장점이다. 19g 302만원대. 문의 031-8009-1500. by 에-티어 생장원

자황시 프리즘 리브르 루스 피우더 N13 생색한 4종 컬러 피우더가 얼굴에 은은한 광채를 주는 동시에 벨벳 매트 파-쉬로 마무리해준다.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유분이 갈라오는 부분에만 톡톡 발라주었다니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오랜 시간 메이크업이 지속되고 매끈하게 유지되는 느낌. 4X3g 9213만원대. 문의 080-801-9500. by 에-티어 생장원



SHOWROOM



다올 뷰티 다올 프레스티지 리 밤드 미누 장미 활성 분자와 다올 프레스티지의 시그너처 성분, 로시펜타이드를 결합한 새로운 로시펜타이드 밤드 미누를 담은 다올 프레스티지 리 밤드 미누를 선보였다. 멜링 텍스처로 부드럽게 흡수되는 이번 신제품은 지친 피부를 밤 동안 케어해 활력을 더한 듯 유연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문의 080-342-9500



샤넬 뷰티 샵스 핸드크림 샤넬 뷰티에서 신념을 갖이해 향기로운을 더해줄 신제품 샵스 핸드크림을 선보였다. 파스텔컬러의 귀여운 패키지에 담긴 이번 신제품은 샵스, 샵스 오망드, 샵스 후레쉬 등 3가지 향으로 구성되어, 촉촉한 텍스처로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며 은은한 진향이 남아 향수 마음으로 제격이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니콜라이 당송 라 카푸친 홀 프라그런스 컬렉션 프랑수아즈 나지 퍼퓸 브랜드 니콜라이가 당송 라 카푸친과 함께 향기로운 세계를 사재할 것을 제안한다. 룸 스프레이와 디퓨저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프라그



에트로 2024년 밀라노 패션 위크 오는 2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에트로가 남성과 여성 컬렉션 런웨이 쇼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패션 위크 기간 중 1월 14일에는 비아 몬테나폴리오네에 위치한 에트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최초의 남성복 테일러링 및 MTO(Made to Order)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3446-1969

몽클레르 2023 F/W 몽클레르 그레노블 컬렉션 하이엔드 럭셔리 아웃도어 브랜드 몽클레르가 기능성과 브랜드 헤리티지를 다한 몽클레르 그레노블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수준 높은 기술력과 몽클레르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담은 아이코닉한 제품으로 선보이며, 서울 몽클레르 스토어를 포함한 백화점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030-8321-0794



몽클레르 하이엔드 럭셔리 아웃도어 브랜드 몽클레르가 기능성과 브랜드 헤리티지를 다한 몽클레르 그레노블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수준 높은 기술력과 몽클레르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담은 아이코닉한 제품으로 선보이며, 서울 몽클레르 스토어를 포함한 백화점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030-8321-0794

부세론 글로벌 캠페인 비주얼 한소화와 함께한 스페셜 기

자연의 향기에 은은한 플로럴 노트를 더했으며, 향기로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990-8989

스위스퍼펙션 트리오 앵클 디스커버리 세트 럭셔리 스카커어 브랜드 스위스퍼펙션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된 트리오 앵클 디스커버리 세트를 출시했다. RS-28 셀룰라 브라이팅 트리트먼트, RS-28 셀룰라 인텐스브 트리트먼트, 마린 케어 트리트먼트, 총 3가지 앵클을 1개씩 구성했으며, 피부의 톤과 탄력 등 토털 스카커어가 가능하다. 문의 1644-4490

발몽 2024 발몽 캠페인 비주얼 공개 1백18년 전통의 스위스 셀룰라 코즈메틱 브랜드 발몽이 2024년을 맞아 예술과 뷰티의 만남과 여정을 담은 새로운 캠페인 비주얼을 공개했다. 발몽의 수장이자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디디에 가욀이 디자인한 이번 캠페인에는 여정을 테마로 8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발몽의 아이코닉한 제품이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문의 070-4352-5203

폴라 00942 시크릿박스 프로모션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 폴라에서 00942 시크릿박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동안 마케팅 활동 없이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선보인 폴라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고객을 위해 준비한 스페셜 이벤트로, 25만원 상당의 B.A 라인 내 대표 제품으로 구성했다. 문의 1688-9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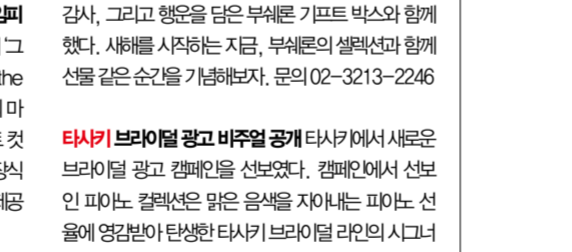
반클리프 아펠 레골 주얼리 스쿨이 주최한 칸버시아 선 & 아린이 워크숍 주얼리 예술 세계를 경험하고픈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최초의 교육기관, 레골 주얼리 스쿨. 내년 4월 14일까지 선보이는 (반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 Van Cleef & Arpels: Time, Nature, Love) 전시 기간 중 1월부터는 다양한 주제로 주얼리의 세계를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는 칸버시아 선과 아린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의 1877-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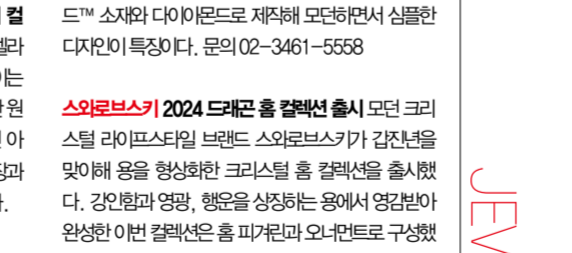
불가리 불가리 알루마늄 X 그란 투리스모 스페셜 에디션 세계적인 워치메이킹 브랜드 불가리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서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했다. 이번 에디션은 한정 수량으로 출시하며, 옐로 다이얼과 블랙 카운터 모델, 그리고 옐로 인텍스를 갖춘 엔트리사이트 다이얼 모델, 총 2가지 버전으로 선보였다. 문의 02-6105-2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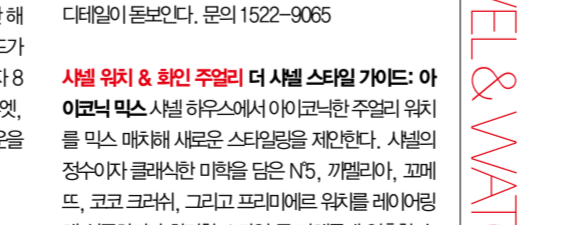
다올 타임피스 그랑 수이르 아이 오브 드래곤 타임피스 송의 해인 2024년을 기념해 다올 타임피스에서 '그랑 수이르 아이 오브 드래곤(Grand Soir Year of the Dragon)'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0.06캐럿의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 27개와 0.0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7개로 용을 형성한 골드 톤 깃털 장식 다이얼이 돋보이며, 약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3280-0104



포멜라토 주얼리에 담긴 사랑의 신비로운, 투게터 컬렉션 단합과 유대감,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포멜라토 투게터 컬렉션에서 다이아몬드 데일리이 돋보이는 새로운 펜던트를 소개한다. 2개의 타원으로 구성된 원형 펜던트는 폴 다이아몬드 패배 세팅으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포멜라토 공식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pomellato.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143-9486



프레드 새해의 행운을 담은 샵스 인피니 컬렉션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며 함께할 주얼리로 메종 프레드가 샵스 인피니 컬렉션을 제안한다. 행운을 담은 숫자 8에서 영감을 받은 샵스 인피니는 우아한 실루엣, 빛나는 블루 사파이어와 토파즈가 돋보이며, 행운을 믿고 담담하게 도전하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514-3721



부세론 글로벌 캠페인 비주얼 한소화와 함께한 스페셜 기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 더 샤넬 스타일 가이드: 아이코닉 믹스 샤넬 하우스에서 아이코닉한 주얼리 위치를 믹스 매치해 새로운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샤넬의 정수이자 클래식한 미학을 담은 N5, 까펠리아, 코페, 코코 크러쉬, 그리고 프리아에르 워치를 레이아웃해 심플하거나 화려한 스타일 등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ART + CULTURE

44



32



42



37



40

다양성의 가치

'혼종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성이 증대되고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은 훨씬 더 폭넓은 차원과 의미의 '다채로운'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직 진정한 관심이 솟아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롯데뮤지엄에서 열린 프랑스 작가 JR 개인전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소수자, 이민자, 난민, 빈민, 지역 갈등 같은, 비엔날레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를 미적 감각과 유머, 진솔함이 갖은 자신만의 영리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JR은 평소 좋아하던 작자라 친가보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는데, 평은 좋았지만 그리 큰 화제성을 몰고 온 것 같지 않았기에 아쉬운 미음과 교묘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인종과 다문화가 주를 이루는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짙은 사회여서 그렇다는 섀프 변경 같은 걸 하면서 말이지요(물론 그 원인은 좀 더 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 잘 살고 있는데, 혹은 우리끼리 잘 살기 도 힘드는데 굳이 왜 다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성별, 종교, 성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다양성이 어느덧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리면서 인위적으로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 순수한 구별과 비평마저 봉쇄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피터 우드 같은 학자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량이 있더라도 이슈 자체를 둘러싼 논의까지 무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겉이든 속이든 똑같은 모습과 개성을 지닌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성이 내재된 고등 생명체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달리 보이지만 결국은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므로 온갖 비교의 잣대를 동원하면서 서로를 가림차게 여길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이번 (스타일 조선타블) 'Art+Culture' 겨울 스페셜에서는 다양성 논의에 있어서만큼은 때때로 기술적/과도기적/적극적/고용주적인 태도를 지녀온 글로벌 미술계의 면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구 자체가 여러모로 위기를 맞은 현 상황에서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조금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김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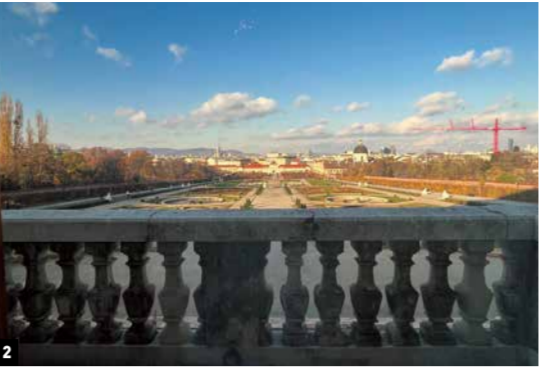
FASHION

JEWEL & WATCH

#고전부터 컨템퍼러리까지 아우르는 월드 클래스 컬렉션과 기획전



1, 3 벨베데레 하층에서 선보이고 있는 프랑수아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전시. 1940년대 초 '작' 회화 작업을 작가의 조각, 드로잉, 설치, 프린트 등과 병치해 인상적인 큐레이팅 감각을 보여주는 전시로 작가의 깊고 위대한 예술 여정을 느낄 수 있다. 1월 28일까지. 2 벨베데레 상층의 전시실 형태로 보이는 프랑수아즈 부르주아의 '세계'를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월 28일까지. 2 벨베데레 상층의 전시실 형태로 보이는 프랑수아즈 부르주아의 '세계'를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월 28일까지.



클림트의 색채에 빠졌다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창조혼에 경의를 벨베데레

● 날이 맑아도, 흐려도 늘 북적거리는 비엔나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인 바로 벨베데레(Belvedere) 궁이다. 1863년 비엔나의 전쟁 영웅(프랑스 사보이 공의 아들)이지만 오스트리아로 망명했다) 오이겐 공이 만든 여름 궁전으로, 크게 두 건물로 나누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줄이 길게 늘어선 건물은 주로 언덕 위에 있는 상층이다. 비엔나의 '세계' 황금기를 빛낸 대표적 예술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역작 '키스'를 비롯해 작가의 눈부신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다. 클림트 추종자라면 뽀뽀뽀 뽀뽀는 장식적인 외관 덕분에 '금색 양배추 마리아'는 별칭이 붙은 제비꽃(클림트) 미술관과 더불어 벨베데레 궁을 필수적으로 찾는다. 상층 앞에는 프랑수아즈 부르주아의 '세계'를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월 28일까지.

●● 상층은 19세기와 20세기 회화를 주로 보여주고, 하층은 중세에서 바로크에 이르는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던 유년 기획전이 전차적으로 많이 열려 고전 명화와 근현대미술, 동시대 미술까지 섭렵할 수 있다. 따라서 벨베데레를 방문하면 하루 종일 머물러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입장을 짧게 잡아 클림트 작품이 있는 전사실 위주로 보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클림트조차 잘 알지 못하는 초기작을 포함해 작품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에게는 '빛'과 '시간'과 '표' 모두 이었다. 오이겐 공의 위세를 느낄 수 있는 대리석 방부터 정원의 조각과 연못 등 건축과 조경 자체도 불민한 데다 오스카어 코코슈카, 에른 슐레 등 명성 높은 비엔나 출신 가장은 물론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다양한 전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획이 때때로 있다. 개인적으로 옮겨온 최고의 감동은 하층에서 열리고 있는 '가이 조각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전시'였지만 말이다.

#비엔나에 신선함을 불어넣는 새 랜드마크들



1, 2 비엔나에 새로운 활기를 더해주는 컨템퍼러리 아트 스페이스인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Heidi Horten Collection) 내부. 2 1백5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재래식 건물로 탈바꿈시킨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 3 하이드 호르텐의 소장품과 기획 전시도 활발하게 열리는데, 이그네스 후슬라인-아르코(Agnes Husslein-Arco) 대통령이 총괄하며 컬렉션 확장과 전시 기획에 힘쓰고 있다. 4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 내부에 있는 마그네틱이 돋보이는 티볼. ※ 1~4 이미지 제공: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

'스토리텔링'이 깃든 컬렉션을 바탕으로 한 전시 공간_하이드 호르텐 컬렉션

● 알베르티나 미술관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자리한 1백50년이 훌쩍 넘는 유서 깊은 미색 주택, 'Heidi Horten Collection'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이곳은 한 컬렉터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아트 스페이스다. 2022년 6월 초 문을 열었는데, 여러모로 화제를 모은 전시 공간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 억만장자인 하이드 호르텐(1941~2022)이 마련한 공간이기도 하고, 당시 81세였던 그녀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린 나이에 헬무트 호르텐이라는 거부와 결혼한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뒤 본격적으로 아트에 큰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됐고, 되도록 티 내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기는 했지만 차츰 미술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96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독일어를 쓰는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여성 고액어 무려 2천2백만 달러 규모의 작품을 사들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 하이드 호르텐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녀의 소장품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컸는 않았지만(현재 기준 7백 점 이상) 그 목록에 있는 작품들의 이름은 입이 딱 벌어질 만했다. 파블로 피카소, 장-미셸 바스키아, 마르크 샤갈,

앤디 워홀, 이브 클랭, 프랜시스 베이컨, 게르하르트 리하터 등 굵직한 작가들이 포진해 있었고, 경매에서 이슈가 됐던 흉미흉기나 주요한 작품도 보였다. 이미 2018년 레오폴드 뮤지엄에 자신의 소장품 1백70여 점을 전시했던 그녀는 현재 아트 스페이스의 부지(2,000㎡)와 건물을 구입해 2019년 자신의 미술관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시대의 세련되고 독창적인 감각을 반영하겠다는 포부도 비엔나의 건축 설계 사무소 더 넥스트 엔터프라이즈(the next ENTERprise)를 발탁해 인상적인 내부 공간을 짓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사망한 뒤에 소장했던 보석들이 경매에 나오면서 호르텐 가문의 재산이 나치 시대에 거둔 그릇된 이익으로 쌓은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 전시 공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비엔나에 새로운 활기를 더해주는 컨템퍼러리 아트 스페이스인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Heidi Horten Collection) 내부. 2 1백5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재래식 건물로 탈바꿈시킨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 3 하이드 호르텐의 소장품과 기획 전시도 활발하게 열리는데, 이그네스 후슬라인-아르코(Agnes Husslein-Arco) 대통령이 총괄하며 컬렉션 확장과 전시 기획에 힘쓰고 있다. 4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 내부에 있는 마그네틱이 돋보이는 티볼. ※ 1~4 이미지 제공: 하이드 호르텐 컬렉션

근대의 걸작부터 동시대의 정수를 품다_알베르티나

● 미술 문외한이라도, 또 미술관 이름은 모르더라도 영화(서포선라이즈) 촬영지라고 운을 댄다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알베르티나(Albertina). 원래는 미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딸인 마리아 크리스티나의 남편 알베르트 공이 살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15세기 궁전이라 일단 인테리어가 우아한 화려함을 내뿜는다. 알베르트 공은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이 많았기에 사후에 그의 이름을 따 알베르티나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 하지만 2003년 건축가 한스 홀라인이 레노베이션을 맡아 현재의 미술관 외관은 현대적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다. 외부에서 보면 길 위쪽에 날렵하게 뻗어 있는 날개 모양의 구조물이 바로 그것이다. 어쩌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비엔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다. 미술관 전시 공간도 그러한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분위기의 디자인이 교차하면서 매력적인 분위기를 뿜어낸다.

●● 비엔나에 1백 개 훌쩍 넘는 미술관이 있지만, 알베르티나는 아마도 근대 회화의 거장을 사랑하는 미술 애호가라면 가장 선호할 만한 보석 같은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에서는 마티스, 미로, 르누아르, 클림트 등 주옥같은 이름이 차고 넘친다. 대표 소장품 중 하나인 알브레히트 뒤러의 '토끼(Der Hase)'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다(실제로 보면 생생한 묘사에 경탄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아 놀라기도 한다). 현대미술로 눈을 돌려봐도 수준급 기획력과 실행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말 방문했을 당시 운 좋게 감상했던 독일 작가 카타리나 그로세(Katharina Grosse)의 개인전이 바로 그러한 예일 것이다.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치 작업으로 공간 자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탈바꿈시킨 전시다. 동시에 열리고 있던 모네-피카소 전시도 좋았지만, 고틀프리트 헬름비인(Gottfried Helmwien) 전시의 과감하고 웅장한 대조도 이미로 알베르티나에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1 알베르티나의 소장품 전시(모네에서 피카소까지(Monet to Picasso) 설치 모습. 2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독일 현대미술가 카타리나 그로세(Katharina Grosse)의 전시 모습. 오는 4월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3 외부에서 보면 날렵하게 뻗어 있는 날개 모양의 구조물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알베르티나의 건축 외관. Photo by 고성연



2 알베르티나의 소장품 전시(모네에서 피카소까지(Monet to Picasso) 설치 모습. 2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독일 현대미술가 카타리나 그로세(Katharina Grosse)의 전시 모습. 오는 4월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3 외부에서 보면 날렵하게 뻗어 있는 날개 모양의 구조물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알베르티나의 건축 외관. Photo by 고성연



3 외부에서 보면 날렵하게 뻗어 있는 날개 모양의 구조물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알베르티나의 건축 외관. Photo by 고성연

현대미술의 정수를 담은 새로운 장_알베르티나 모던

● 알베르티나가 근대 명화와 더불어 방대한 드로잉, 그리고 올드 마스터 프린트 작업을 소장하고 있는 유서 깊은 대형 미술관이던 현대미술을 집중적으로 품어낼 만큼으로 2020년 알베르티나 모던(Albertina Modern)이 문을 열었다. 여기서 현대미술이라 함은 주로 1945년 이후의 작품을 말한다. 알베르티나 본관에서 도보로 10분 내에 다다를 수 있는 알베르티나 모던의 소장품은 에슬과 자블론카(The Essl and Jablonka)라는 2개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하는데, 5천여 점의 작품 6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 목록 역시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팝아트 작가부터 개관 전 작가인 마리아 라스니그, 파블로 피카소, 데이미언 허스트, 안젤름 카퍼 같은 동시대의 주요 작가들로 이루어졌으며, (당연하게도) 현재 오스트리아-독일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가들의 수작을 보는 재미가 있다.

●● 마침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오스트리아-독일' 공동분모로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이 지역권 대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미술사 공부를 실제 작품을 앞에 놓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기획

전이었다. 게르하르트 리하터, 시그마 폴케, 프란츠 웨스트, 마르타 울비트, 게오르크 바젤리츠, 카타리나 그로세, 마리아 라스니그, 젤리틴 등의 전시였다. 알베르티나 모던이 문을 연 후 또 다른 화점거리는 2021년 가을 독일 출신의 40대 여성 큐레이터 앙겔라 슈티프(Angela Stief)가 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을 것 같다. 학제리와 스트리트 패션을 제때에 섞은 듯한 뒤는 패션에 나치적인 목소리로 조곤조곤 할 말을 다 하는 이 개성 넘치는 큐레이터의 관장은 여성 팝 아티스트, 퍼포먼스, 쿼터 문화 등 다양성의 폭을 넓히는 기획을 시도하고 있다. 큐레이터로서 알베르티나의 카타리나 그로세 전시도 진두 지휘했는데, 올해 열리는 (The Beauty of Diversity)라는 기획전도 주목해달라고 필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1 알베르티나 모던(Albertina Modern)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 전시 모습. 오스트리아-독일 지역권의 현대미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시선은 개관 전 작가이기도 했던 마리아 라스니그(Maria Lassnig)의 전시이다. 2 오스트리아 출신의 예술가로 조각과 설치로 유명한 프란츠 웨스트(Franz West, 1947~2012)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3 알베르티나 모던 건물 외관. Photo by 고성연



2 알베르티나 모던(Albertina Modern)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 전시 모습. 오스트리아-독일 지역권의 현대미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시선은 개관 전 작가이기도 했던 마리아 라스니그(Maria Lassnig)의 전시이다. 2 오스트리아 출신의 예술가로 조각과 설치로 유명한 프란츠 웨스트(Franz West, 1947~2012)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3 알베르티나 모던 건물 외관. Photo by 고성연

#차근차근 보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미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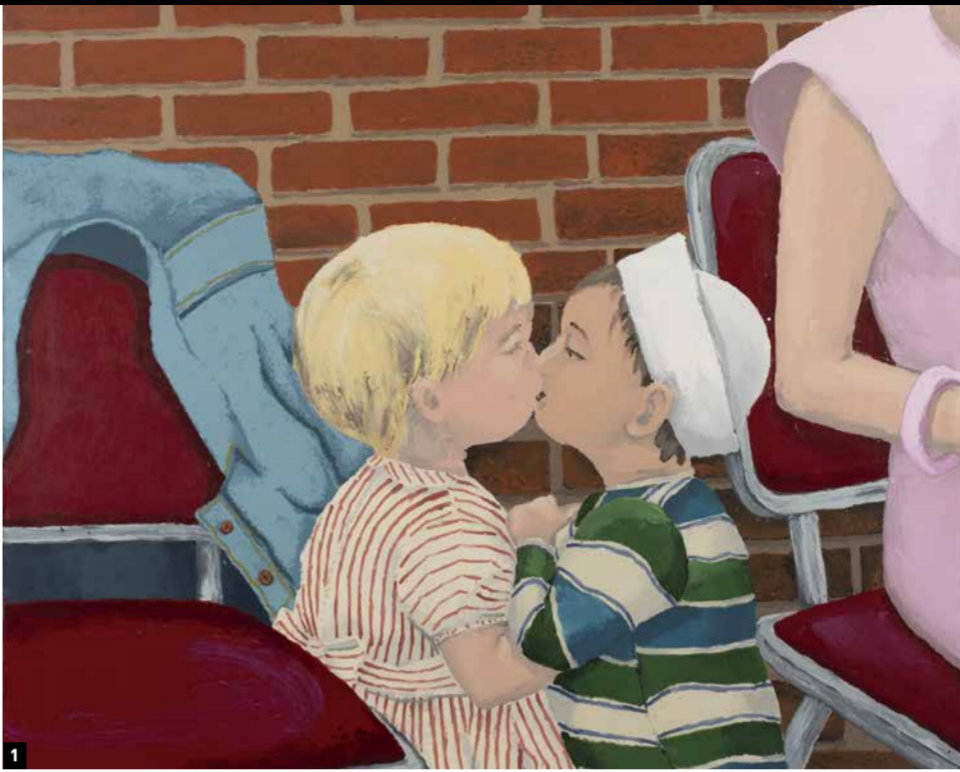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경매의 메카, 도로테움

● 비엔나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매장 중 하나이자 유럽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옥션 하우스인 도로테움(Dorotheum)이 있다. 3백 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1707년 당시 황제였던 요제프 1세가 설립한 도로테움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치지 않려져 있지 않지만 도로테움 세(Dorotheergasse)에 위치한 비엔나 본사를 필두로 독일,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그리고 파리와 런던,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점점들 둔 글로벌 경매업체다. 독어권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형 옥션 하우스가 그렇듯 경매 카테고리도 무척 다양한 편인데, 올드 마스터 회화부터 19세기 회화, 모던, 컨템퍼러리, 앤트릭, 아르누보, 보석, 시계, 가방 등을 아우른다. 특별 경매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디자인, 도자기, 유리공예, 사진, 역사적인 과학 기기, 악보, 우표, 동전, 책, 시발 시문 등 범주가 다채롭다. 1백 명 넘는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세상에겐 상담해주기도 한다.

●● 도로테움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도로테움 궁'이라고 불리는 고층스러운 건축물을 보급지리로 삼고 있는데, 원래 건물은 1901년 완성되었다. 네오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을 기원한 인물은 비엔나의 명문인 링슈트레

를 설계한 피르스테(Förster)다. 도로테움은 화려한 전설을 누렸지만 사실 나치 시대에는 빼앗은 유대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도 지니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도로테움은 재건에 나섰다. 긴 세월이 걸쳐 명성을 다지며 성장 가도를 달리다 1980년대 입구와 내부를 재단정하는 등 레노베이션을 가졌다. 2001년 가을 현재의 경매장이 인수하면서 도로테움은 비엔나라는 도시가 경매의 메카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예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경매장은 확실히 직접 가보아 나와의 인연, 혹은 적어도 인연을 맺고 싶을 만큼 눈을 사로잡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것 같다. 아르놀프 라이너(Arnulf Rainer)의 감각적인 회화부터 지 피로 길라르디(Piero Gilardi)의 존재감 넘치는 설치 작품은 파근한 의중에도 절로 몰입해 감상하게 된다.

1, 2 도로테움(Dorotheergasse)에 위치한 도로테움(Dorotheum) 비엔나 본사의 경매장 내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매장 중 하나이자 유럽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옥션 하우스다. 3 일부 레노베이션 작업을 거친 것은 여전히 고층스러운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테움. 3백 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1707년 당시 황제였던 요제프 1세가 설립했다. 확구된 품목에 관심이 있다면 연간 캘린더를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Interview with 마누엘 솔라노(Manuel Solano)

이해하고 이해받기 위한 여정

"건강이 회복되었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간 내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고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가 독감에 걸린 탓에 어렵게 조율한 인터뷰를 서면으로 변경하고 당일 약속을 취소한 무례한 상황으로 미안함에 마음이 불편한 어느 날, 갤러리를 통해 작가의 서신을 전달받았다. 어쩔지 포근한 온기와 미소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작가의 다정하고 세심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함께 온 인터뷰 답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마누엘 솔라노(Manuel Solano)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보았다. 호기심이 애정과 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친구 도움을 받아 붓으로 유화를 그려보았는데 너무 느린 데다 붓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캔버스나 물감의 양을 조절할 수 없었어요. 또 일반 캔버스 위에 지금의 방식인 핀, 끈 등을 사용하고 손으로 물감을 칠해보기도 했지만 핀이 캔버스에 남아서 쉽게 흔들리고 떨어져 재대로 작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캔버스 천을 붙이고 붓으로 고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시도했어요. 꽤 익숙해졌지만, 그림에도 그려본 적 없는 질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 없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지 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최신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작업 방식 때문에 작품 크기가 대부분 큼직한 편이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곳곳에 난 작은 구멍을 볼 수 있다. 한 작품을 그리는 데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기에 작품 하나도 하루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에서 고집이었던 단편적 이미지를 더욱 소중하게 그려왔을 것이다.

볼 수 없어도 보이는 기억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페레스프로젝트 서울에서 1월 14일까지 열리는 마누엘 솔라노 개인전 (피자(Pizza))는 제목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는 피자만 같이 이득하고 연약하며 순수한 감성을 담은 전사. 전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동명의 작품 'Pizza(2023)에는 빨간 피자대를 입고 천천히 천천히 웃는 어린 마누엘이 있다. "이 작품은 어머니가 짜주신 사탕에서 시작했어요. 사탕을 만들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피자만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잠자기 전에 하는 사탕이 오히려 제 몸을 깨우고 활기 있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스꽝스럽고 장난스러운 모습이 표현되었고요. 이런 전사작품은 저의 어린 시절을 기반으로 실제 사탕이나 기억을 참조합니다. 저의 장난기 가득하고 감각적이며 즉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심리학자 리처드 애트킨슨과 리처드 사프킨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에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등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저장하는 감각 기억은 지속 시간이 짧아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여기서 살아남은 감각 기억의 정보는 단기 기억으로 이동하고, 이를 장기 기억으로 옮겨려면 반복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 기억도 사실은 불안정하다. 하나의 사건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며 살아 대하되고 왜곡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 않은가. 예술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이런 불안정한 기억을 보완해주는 도구였다. 시간이 가 없던 시절, 그림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따기 운 풍경을 담아내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했다. 눈으로 본 장면뿐만 아니라 쉽게 잊어버리는 희망을, 슬픔을, 기쁨을 예술이란 행위로 기억하고 기록했다. 예술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감각으로 새겨지는 기억

기억에 관한 설명이 깊어진 것은 멕시코 출신 작가 마누엘 솔라노(1967)에 기를 하기 위해서다. 20대 중반 인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합병증으로 시각이라는 중요한 감각을 잃은 작가는 빛이 아닌 손끝의 촉각에 의존해 그림을 그린다. 작품 소재는 자신의 기억, 시각을 잃기 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발굴하고 재구성하고 복원한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장면이 캔버스 위에 나타나며 촉각이라는 새로운 감각 기억이 되는 셈이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남보다 '보는' 감각이 뛰어났을 그가 갑자기 시력을 잃고 감동했을 좌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고, 볼 수 없어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현재 작가 가 찾은 방법은 벽에 캔버스 천을 붙이고 붓과 못, 끈, 줄로 윤곽을 잡은 뒤 손으로 그 모양을 따라가며 물감을 칠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때 스튜디오의 팀원들이 세심한 피드백을 주고 필요한 모양을 배치해주며 캔버스를 틀어거나 조색을 도와준다. 굳이 물어야 할 필요도 아닌 작업 방식을 찾아가 지어 나가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흥미롭게 영글어가는 갤러리 현장

● 사실 미술 시장을 애가 하려면 온도가 좀 달라져야 한다. 비엔나는 명실공히 찬란한 할스부르크의 위용 넘치는 유산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의 인프라와 토양을 지니고 있고, 고전과 동시대를 아우르는 풍부하고 수준 높은 미술 컬렉션과 기록되어 갖춘 문화 예술 허브 도시다. 최근에는 한겨울인데도 빈 미술사 박물관 앞에 줄이 파리를 볼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엔나가 요즘 '핫 데스티네이션(hot destination)'이라고 해요." 테라스의 전사를 설명하면서 라파엘의 예술 노동이 어쩌서 불공정한 계약이었는데 강조하던 한 루이티가 한 말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매와 함께 아트 페어, 그리고 갤러리의 신이 나란히 사나지를 내면서 떠날처우야 하는 법이다. 경매는 도로테움이라는 큰 산맥이 있기는 하지만 크리스티와 소더비 같은 브랜드 파워를 갖춘 공룡이 곁에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트 페어를 놓고 보더라도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프리즈와 아트 바젤 같은 페어 브랜드가 포진한 곳이 런던, 파리, 바젤 등의 유럽 도시이기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워야 한다. 반드시 규모만 영두에 둔 출혈경쟁이 아니라 틈새를 개척하거나 동맹을 맺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1 마이어 카이너(Meyer-Kainer) 갤러리에서 선보인 비엔나 출신의 4인조 예술가 그룹 젤리틴(Gelitin) 전시 작품. 하디 호르텐 젤리틴에서 작품을 소장 중인 그림이다. 2 마르틴 안다(Martin Janda)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Svenja Deininger - Cache' 전시 모습. 3 빌드라움(Bildraum) 갤러리에서 열린 카이 필리프 트라우젠게(Kai Philip Trausenegger) 전시. 전사명은 'Auxiliary Lights'.





뉴욕(New York)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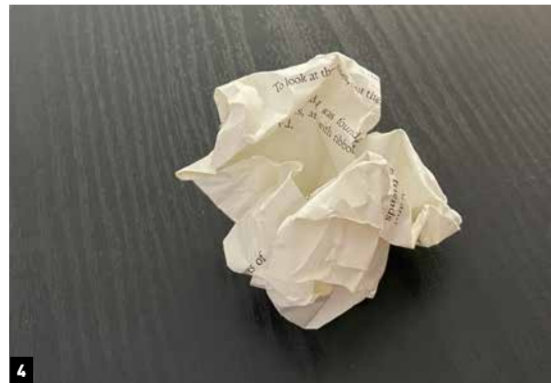
지금 우리 미술을 향한, 세상의 달라진 시선

“안녕하세요!” 익숙한 언어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환한 미소를 띤 채 한국어로 다정하게 인사말을 건네는 외국인 직원이 보였다. 1960~1970년대 한국 실험 미술을 조명하는 그룹전 <Only the Young>이 열리고 있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기프트 스페에서였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뉴욕을 거쳐 올해 2월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해머 미술관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최근 1~2년 사이 동서부를 막론하고 미국 전역에 걸쳐 크고 작은 한국 미술 전시가 유난히도 많이 기획되었다. 물론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국내 작가는 셀 수 없이 많고, 프리즈 아트 페어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한국이 국제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게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찾은 뉴욕의 미술 현장에서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진다.

생성에서 소멸—예술이라는 존재의 강력한 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한국 실험 미술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우리 현대미술가들의 퍼포먼스! 이진용, 성능경에 이어 지난 12월 초 대미를 장식한 김구림의 퍼포먼스는 작가의 작업 'The Meaning of 1/24 Second(1/24초의 의미)(1969) 앞에서 재현됐다. 마이크 앞에 선 퍼포머가 시집을 한 장씩 낭독한 뒤 해당 페이지를 섬세하게 찢어 이젤 앞에 앉아 있는 퍼포머에게 넘기면, 그

가 종이를 건네받아 앞에 있는 흰 종이에 목탄으로 시를 옮겨 적었다. 필사를 마친 페이지는 마구 구겨져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다. 거의 모든 페이지가 찢겨나가 시집 표지만 남을 무렵, 옮겨 적힌 문장으로 가득한 검은 화면은 뻑뻑한 글씨로 뒤덮여 더 이상 의미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김구림의 '생성에서 소멸'은 이처럼 한 권의 시집과 하얀색 종이, '소멸'되고 동시에 퍼포머들의 낭독과 필사라는 행위로 인해 이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에서 펼친 퍼포먼스에서 윤동주와 김소월, 나태주의 시를 담은 시집 <시로 배우는 예쁜 말>이 낭독되었는데, 이번엔 시인이자 화가 에텔 아드난(Etel Adnan, 1925~2021)의 영문 시집 <Surge>가 낭독되었다. 관객은 이후 바닥에 떨어진 종이 문장을 자유롭게 주워 갈 수 있었는데, 마침 손에 닿은 페이지에는 'reality(현실)'에 대한 회의의 고찰이 담겨 있었다. 문득 '꿈' 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재상상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의 힘'이말로 국경과 세대를 넘나드는 공명을 이끌어낸다는, 잠시 잊고 있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떠올랐다.

뉴욕을 위시해 미국 전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국 미술의 달라진 존재감

구겐하임 미술관 전시는 한국의 실험 미술이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의 주요한 실천 중 하나를 이뤄냈음을 세계적인 맥락에서 강조했고, 이에 뉴욕 유수의 갤러리도 앞다퉀 실험 미술 작가의 개인전을 언더는 소식을 알리었다. 현대미술 시장 1번지로 꼽히는 뉴욕에 부는 한국 작가 열풍은 심상치 않다. 앞서 동시대 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호의 뉴 뮤지엄에서는 이미레 작가의 개인전 <Mire Lee: Black Sun>이 열렸고(2023. 6. 29~9. 17),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룩펠러 센터 빌딩에서는 박서보, 이매, 진 마이어슨 3인전(Origin, Emergence, Return)(2023. 6. 8~7. 23)과 함께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이매의 대형 작업 'Issu du Feu(불로부터)'(2023)가 룩펠러의 채널 가든 플라자에 설치됐다. 지난 재난에 대한 정화의 상징을 담은 21피트짜리 거

*Guggenheim Museum,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1960s-1970s(2023. 9. 1~2024. 1. 7)



1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한국 실험 미술 기획전에서 전시된 이송택의 'Untitled(Sproul)(1963/2018)'. 발아하는 새싹을 연상시키는 대형 설치 조각은 한국의 전통 토인 울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Installation view,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1960s-1970s,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September 1, 2023-January 7, 2024. Photo by Ariel Ione Williams ©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2 당시 활동한 여성 예술가 정강자의 'Kiss Me(1967/2001)'는 추방용 고무장갑, 선글라스를 낀 여성들의 등을 통해 사회에 통풍되던 여성의 역할에 대해 반문한다. Installation view,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1960s-1970s,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September 1, 2023-January 7, 2024. Photo by Ariel Ione Williams ©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3, 4 존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순환에 대한 의미를 담은 김구림의 퍼포먼스는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 김경 글씨로 뒤덮인 종이를 찢고 시집의 한 페이지, Kim Kulim, 'From Creation to Extinction' (2015). Performance view,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1960s-1970s,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September 1, 2023-January 7, 2024. © Kim Kulim. Photo_Ed Marshall. Photo by 김경우 5 Kim Kulim, 'The Meaning of 1/24 Second'(1969). Color 16 mm film, silent, 9 min., 14 sec.; edition 2 of 8,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NY 10001 November 10-December 22, 2023 Photo_Courtesy Pace Gallery 6 뉴욕의 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린 이진용 개인전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바닥을 가로질러 나가며 분필로 그린 그림이 작가의 발자국으로 자취하는 퍼포먼스는 그곳 다자우를 반복하며 완성해가는 회화의 본질 또는 창조와 소멸을 뜻한다. Lee Kun-Yong: Snail's Gallop, 540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Performance on July 13, 2023 Photo_Courtesy Pace Gallery 7 지난해 뉴욕 뉴 뮤지엄에서 열린 이미레 개인전 <Mire Lee: Black Sun> 설치 모습. New Museum 4th Floor June 29-September 17, 2023. 이미지 제공_티나킴 갤러리(Tina Kim Gallery)

대한 숲 덩어리 작업은 뉴욕의 고층 빌딩과 대비되면서 이색적인 볼거리를 자아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한국실 개관 25주년을 기념해 <Lineages: Korean Art at the Met>을 선보인다(2023. 11. 6~2024. 10. 20). 미술관의 12세기 소장품과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병치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내다보고자 기획되었다. 다가오는 9월에는 한국 작가 이불의 커미션 작업이 미술관 입구의 파사드를 장식할 예정이다. 내로라하는 해외 갤러리들과의 전속 작가 체결 소식도 훨씬 더 자주 들려온다. 2022년 이진용과 손을 잡은 페이스 갤러리는 지난해에는 유영국의 에스테이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두 작가의 첫 뉴욕 개인전을 각각 개최했고, 작년 3월 성능경과 전속 계약을 맺은 리만버핀도 올가을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비단 뉴욕에만 한정된 현상도 아니다. BTS 멤버 RM이 오디오 가이드를 맡아 웹사이트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LA 카운티 미술관(LACMA)의 <The Space Between>(2022. 9. 11~2023. 2. 20) 전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해 한국의 근대미술을 다뤘으며,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는 한국 채색화 특별전을, 콜로라도의 덴버 미술관에서는 한국 분청사기 기획전을 열면서 김환기, 윤영근 등의 회화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 또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최초의 한국 작가 그룹전 <The Shape of Time>(2023. 10. 20~2024. 2. 11)에서 동시대 작가 28인의 활발한 활동을 조명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미술 기관에서 한국 미술 전시와 연계 행사가 이토록 집중적으로 열린 적이 또 있었었는가? 물론 예전에도 갤러리를 주축으로 한 한국 작가 전시는 많았

고, 유명 미술관 컬렉션에서 국내 출신 작가의 작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 희귀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세부터 동시대까지 아우르는 한국 미술의 여러 시기와 장르에 대한 탐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건 초유의 현상이 아닌가 싶다.

지금 왜 한국 현대미술, 그리고 실험 미술인가?

물론 한국 미술의 존재감이 하루아침에 두각을 나타냈을 리는 없다(아직도 '주류라고 볼 수도 없지만). 2015년 불어온 단색화 바람은 여차피 풀 저평가된 우량주를 모색하려는 레이더를 가동하기 마련인 시장의 시선이 머무는 덕에 유행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부침은 있을지언정 나름 꾸준히 이어져왔다. 다른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기도 했다. 최근 한국 미술의 약진은 전반적으로 커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러 계기가 있기도 했지만 영화나 음악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향한 선망이 시너지를 일으켰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가을 'American Museums Keep the Spotlight on Korean Art'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미술계에서 자리 잡은 한국 여성 큐레이터들의 활약상에 주목하기도 했다. 예컨대 구겐하임 전시는 안휘정 아시아 미술 어소시에이트 큐레이터가 국립현대미술관 강수경 큐레이터와 공동 기획했다. 덴버 미술관 전시는 한현정 아시아 미술 수석 큐레이터가, 필라델피아 미술관 한국 전시는 미술관 최초의 한국인 임원이자 컬렉션 담당 부관장인 우현수 큐레이터가 각각 그 뒤에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는 한국 미술 전담 큐레이터인 현수가 씨가 맡았다. 한국국

제교류재단(KIF)과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신설된 직책인데, 한국의 정부와 유관 기관, 기업 차원의 후원은 이처럼 또 다른 밑거름이 된다. 2023년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가 미술관 이사로 선임된 LACMA의 근대미술전 또한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았다.

시장 가치 높은 특정 작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던 예전과 달리, 시대를 넘나드는 한국 미술 전반에 대한 탐구가 이뤄지는 요즘 추세는 흥미롭다. 그 시선의 중심에 실험미술이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도 뜻깊다. 실험 미술은 1960~1970년대 격변기를 맞았던 한국의 독특한 시대성과 맞물려 태동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압축 성장, 군사정권의 강도 높은 사회적 검열, 세계화 과정에서 유입된 해외 문물의 영향 등으로 대혼란의 시기를 맞은 한국의 예술가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노력했다. 기존 사회와 예술계의 보수적인 체제에 반발한 이들이 선보인 급진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에 대한 반응은 '놀랄 노자', '이것이 작품(?)' 등의 표현이 가득했던 당시 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예술보다는 괴상한 행위로 여겨지곤 했다. 실험 미술을 이해하려면 당시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따라와야 한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기회의 장이 펼쳐지는 건 반가운 신호다. 사실 팬데믹이라는 공동의 재앙을 겪은 세계는 이내 안광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중동의 무려 충돌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지금, 실험 미술이 펼친 저항의 역사를 돌아보는 건 시기적으로도 의미 있지 않나 싶다. 글 김연우(뉴욕 통신원)



시드니 아트스페이스(Artspace) 재개관을 맞이하며

Reflections on Art and Diversity

다양성은 창의성과 사회 혁신, 포용력을 결정한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간을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것과의 조우를 이끌어내며 익숙지 않음에 대한 공감을 키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에이드리엔 마리 브라운(Adrienne Maree Brown)은 “우리는 사회화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논박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경청하는 방법, 특히 추측이나 반감 없이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달려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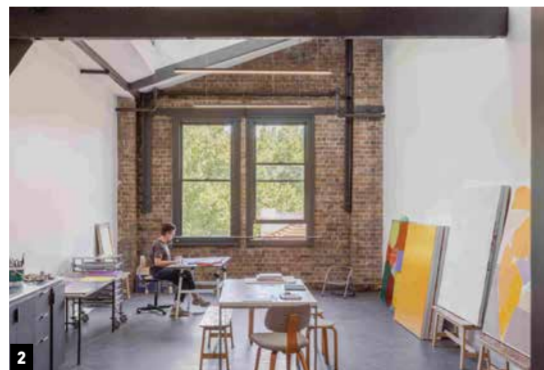
Diversity drives creativity, social innovation and open-mindedness. It seeds new ideas, sparks encounters with the unexpected, and cultivates empathy for the unfamiliar. Most importantly, it moves societies forward. “We are socialized to see what is wrong, missing, off, to tear down the ideas of others and uplift our own,” writes American writer and activist Adrienne Maree Brown, “To a certain degree, our entire future may depend on learning to listen, listen without assumptions or defenses.”

다양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힘겨운 논쟁은 동시대 미술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인구구조가 다문화적인 나라에서 특히 그렇다. 호주의 시드니는 전 세계에서 다문화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도시 중 하나다. 백인 식민 지배에 기반한 다분히 유럽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지닌 시드니는 과거 6만5천 년 동안 그곳에 거주해온 호주 원주민 공동체와의 융화를 꾀하고 있다. 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호주인에 대한 정의 자체에 관련해 미술계와 예술가로부터 거센 도전장을 받고 있다.

Contemporary art has increasingly become the vehicle through which difficult conversations around diversity and representation occur, particularly in countries with culturally heterogeneous populations. In Sydney, Australia - one of the most multicultural cities in the world - a prevailing Eurocentric national identity built on white colonial dominance is being reconciled with the voices of First Nations communities who have lived there for 65,000 years. Additionally, with an ever-growing population of migrants from Europe, Asia and Africa, what it means to be “Australian” is actively being contested by arts institutions and the artists they work with.

2022년에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의 신관 건물이 들어서면서(※1백50년 역사를 지닌 구관 건물 옆에 나란히 세워진 신관은 오페라하우스 아래 ‘역대급’이라는 수사를 동원한 대형 프로젝트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로 불렸다. 편집자 주)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제도 원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전용관을 입구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호주 원주민의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표성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의 범주를 넓어지고 있다. 예컨대 혁신적인 호주 원주민 출신 직원들이 팀을 이뤄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업무와 교육뿐 아니라 의사 결정을 주도해나간다.

In 2022, the new building of the state-funded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First Nations art and



culture by placing its dedicated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gallery prominently, near the entrance. Yet this engagement with representation extends beyond the art. A dedicated team of First Nations staff lead decision-making, as well as community-focused engagement and learning.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독립 미술관 아트스페이스(Artspace)는 대대적인 공사를 마친 뒤 호주 원주민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12월에 재개관했다. 위라두리(Wiradyuri)와 카밀라로이(Kamilaroi) 출신 아티스트 조너선 존스(Jonathan Jones)의 개인전 <조너선 존스: 무제(국가의 기록)>는 교역과 식민지 원정 때문에 원산지에서 축출당한 토종 식물, 동물, 오브제의 이야기를 추적한다. 한편 카밀라로이와 가밀라라이(Gamilaraay) 출신 작가 데니스 골딩(Dennis Golding)은 미술관 외벽에 새로운 배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협업과 경청을 바탕으로 탄생한 두 프로젝트는 인간과 자연 모두와 보다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아트스페이스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포함돼 있는데, 호주 원주민 아티스트, 시인, 행위예술가 등이 태평양 지역과 선대와의 유대감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A short distance away, independent-run Artspace reopened in December with a First Nations focus after a major building transformation. Wiradyuri and Kamilaroi artist Jonathan Jones' exhibition *untitled (transcriptions of country)* traces stories of Indigenous plants, animals and objects removed from their homeland through trade and colonial expedition, while Kamilaroi/Gamilaraay artist Dennis Golding presents a new banner work on the building exterior. Born from collaboration and listening, both projects encourage more conscious, ethical connections to people and to nature. Within Artspace's studio program are artists from many cultural backgrounds, including First Nations artists and poets, and performance artists who enliven ancestral ties to the Great Ocean (Pacific) Region.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아트스페이스와 서울시립미술관(SeMA)이 공동으로 주관해 2021~2022년 SeMA 서소문 본관에서 선보인 전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UN/LEARNIG AUSTRALIA>는 새롭게 정의된 호주의 정체성을 한국 관람객에게 소개했다. 양국의 문화와 예술계를 초월한 시도를 통해 마련된 이 전시는 호주의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 특히 호주 원주민 예술가들을 조명하면서 호주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켰다. 카밀라로이, 쿠마(Kooma), 지만(Jiman), 구랑구랑(Gurang Gurang)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 작가 리처드 벨(Richard Bell)의 작품 ‘엠버시(Embassy)’는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인정을 거부한 호주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저항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발리 출신 호주 작가 레일라 스티븐스(Leyla Stevens)는 2명의 여자가 동시에 댄스 안무를 익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잊힌 발리의 여성 예술가들을 재조명했다.

And these narratives resonate beyond Australia. In 2021-22 the exhibition *경로를 재탐색합니다(UN/LEARNING AUSTRALIA)* - co-



1 대대적인 공사와 재단장을 거쳐 자체 미술관 아트스페이스(Artspace) 건물 외관. Exterior of Artspace in The Gurney, featuring new commission by Dennis Golding, *Colouring Memory*, 2023. Photo_Katherine Lu 2 아트스페이스 내의 아티스트 스튜디오 내부 모습. 2024 One Year Studio Program Artist Gemma Smith in their studio, *Artspace*, 2023. Photo_Katherine Lu 3 과거 아트스페이스의 모습. Exterior of The Gurney, Artspace, Sydney, 2012. Photo courtesy of Artspace. 4 Installation View, Jonathan Jones, *untitled (transcriptions of country)*, Gallery 1, Artspace, 2023. Photo_Katherine Lu 5 아트스페이스 재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인 조너선 존스 개인전의 설치 전경. 지난 12월 15일 개막해 오는 2월 11일까지 펼쳐지고, 이후 순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Jonathan Jones, *untitled (emu eggs)* after Etienne-Pierre Venetiat, 2021-23, and *untitled (vases, armes, pêche)*, 2023. Ceramic work_Somchai Charoen. Courtesy the artists. Photo_Jenni Carter 6 Jonathan Jones, *untitled (remembering Eora)*, 2021 and *untitled (remembering Eora: Bedgi Bedgi)*, 2021, after Barthélemy Roger, after Nicolas-Martin Petit. Photo_Jenni Carter 7 Jonathan Jones, *untitled (remembering Eora: Y-erran-gou-la-ga)*, 2021, after Barthélemy Roger, after Nicolas-Martin Petit. Courtesy the artist. Photo_Jenni Carter ※ 이미지 제공: 아트스페이스(Artspace) www.artspace.org.au / artspacedsydney.com

curated by Artspace and Seoul Museum of Art (SeMA), and presented at SeMA - offered South Korean audiences a revised interpretation of Australian identity. Created through inter-institutional cross-cultural learning, the exhibition challenged preconceptions about Australia by foregrounding the country's racial and cultural diversity, and especially its First Nations artists. Embassy by Richard Bell, who is connected to Kamilaroi, Kooma, Jiman and Gurang Gurang communities, made a defiant statement protest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refusal to acknowledge Indigenous land rights. Elsewhere Balinese-Australian artist Leyla Stevens returned agency to forgotten Balinese female artists, through a film showing two women learning dance choreography synchronously.

호주가 현재진행형인 식민지화 제도를 해결하려 애쓰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공정하게 대표하려면 기존의 낡은 인식을 타파하는 탈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을 비판하고 소외된 이들을 살피며, 문화적 특징이 뚜렷한 사고방식을 존중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당위성이 커짐에 따라 예술의 힘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제시하며 우리 너머의 세계를 향한 특별한 창을 열어주는 능력에 있다. 글 조안나 베어
As Australia grapples with ongoing systems of colonization, more unlearning needs to take place to fairly represent diverse communities. With an increasing global imperative to critique discrimination, platform the marginalised, and celebrate culturally-distinct ways of thinking, the power of art lies in its ability to truth-tell, offer hope, and provide unique windows into worlds beyond our own. by Johanna Bear, by Johanna Bear



하루키의 텍스트가 기억될, 미래의 기념관이자 현재의 도서관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무라카미 하루키(1949년생)의 신작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街とその不確かな壁)>이 지난해 일본에서 단숨에 상반기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얼마 전 필자가 방문한 쓰타야 서점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2020년 3월 초, 하루키는 대기답게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사회적 패닉의 조류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3년에 걸쳐 또 한 편의 장편소설을 쥐고 세상에 다시 나왔다. 그리고 2021년 9월, 그가 한창 글에 몰두할 무렵, 모교인 와세다 대학교 캠퍼스에 세계적 '대세' 건축가 구마 겐고의 설계로 '하루키 라이브러리가 탄생했다. 공식 명칭은 '와세다 대학 국제 문학관(早稲田大学 国際文学館)'. 단발적 방문으로 끝나는 기념관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하루키의 40년 글쓰기 이력을 담은 기록 보관소이자 번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문화와 다양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팬데믹이 막을 내린 지금, 누군가는 도쿄로 직접 날아가 이곳에서 '하루키'를 만날 수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신작 소설을 넘기며 그가 설계한 텍스트 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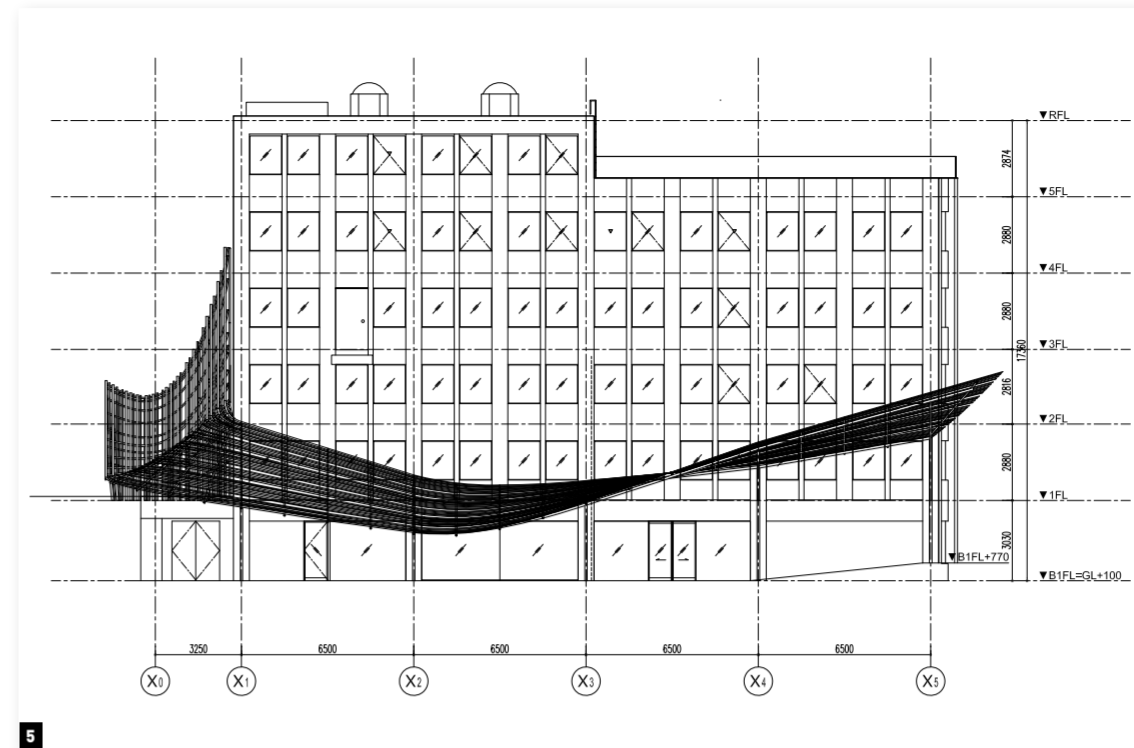
40여년에 걸친 문학 세계를 담은 하루키 라이브러리

2016년 가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출생지인 덴마크 옌센에서 두 일본인 거장이 만났다. 안데르센 문학상 수상자인 무라카미 하루키와 안데르센 박물관의 설계자로 선정된 구마 겐고의 만남이었다. 시상식에서 하루키는 안데르센의 <그림자>라는 소설을 인용하면서 "그림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림자 없이는 배제하면 안되고 평면적인 환상만 남게 됩니다.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듯, 사회와 국가에도 그들만의 어둠과 피하고 싶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에는 되도록 시선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루키는 우리가 견고하게 입체적인 상태가 되려만 반드시 그림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림자를 배제함으로써 모든 것이 밝아지고 매끄럽게 빛나는 현대를 비판했다.

하루키의 수상 소감에서 깊은 영감을 얻은 구마 겐고는 그가 언급한 그림자를 가슴에 담아둔다. 그리고 얼마 뒤 하루키로부터 와세다 대학 내 도서관 설계 의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새 건물이 아닌 오래된 평범한 건물의 개축 작업이라 미안해하는 하루키의 마음과는 다르게 구마 겐고는 오



히려 기뻐했다. 완전한 무(無)에서 하루키의 세계를 지어 내는 건 너무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었다고. 일단 하루키가 오랜세 연설에서 언급한 그 건물의 역사와 함께한 그림자를 키워나가기로 한다. 식물을 가꾸듯 평범한 건물의 그림자를 구마 겐고의 조형언어를 양분으로 삼아 키워나간 끝에 2021년 하루키 라이브러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키는 수기 원고부터 해외에서 발행한 저서, 그가 참고한 서적, 그리고 재즈 바 피터캣을 운영할 당시 사용한 수만 장의 재즈 레코드를 이 도서관에 기부했다.

일상과 비밀상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터널'

하루키 라이브러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터널' 공간이다. 구마 겐고는 자극히 평범했던 콘크리트 상자 모양의 와세다 대학 4호관의 층을 나누던 내부의 슬래브(slab) 2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동굴 형상을 한 터널 공간을 만들어 넣었다. 터널 중앙을 잇는 나무 프레임 사이로 원래 자리했던 천장을 노출해, 공간에 깊이감을 부여하면서도 기존 건물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터널은 하루키의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갑자기 다른 세계로 끌어내는 공간으로, 이 갑작스러운 전환의 매력이 하루키 소설의 핵심이라고 구마 겐고는 설명한다(구마 겐고가 이끄는 건축 사무소 KKAА 자료 참고). 그래서 터널을 일상에서 비밀상으로 이끄는 체험 공간으로 설계했다. 책장을 넘겨 텍스트가 시각 정보로, 시각 정보가 뇌의 신경 정보로, 신경 정보가 가슴으로 들어온 순간 우리는 이야기 동굴에 완전히 빠져 들어간다. 이처럼 빠져 들어감이라는 문학적 의미를 조형적 표현으로 시도한 '터널'의 배경에서 문학과 건축의 미묘한 교차로 생겨나는 영감이 느껴진다.

건물 내부에 자리한 터널의 존재를 외부에서 암시하기 위해 서쪽 파사드부터 시작되는 나무 루버 프레임이 건물을 감싸고 있는데, 이 프레임은 각기 다른 폭으로 구성되어 남쪽으로 휘어가고, 마지막은 동쪽 하늘을 향해 사라져 가는 분위기를 지어낸다. 이러한 구조 역시 구마 겐고가 하루키의 문학에서 느껴지는 바를 조형언어로 표현해낸 것으로, 독자는 하루키의 소설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지만, 그 세계 또한 확실한 게 아니라 언제든 율곡을 잃고 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품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건물 파사드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기에, 하루키의 문학에서 느껴지는 모호함과 미지의 여정이 연상되기도 한다. 또 평범함의 대표 격인 박스 형태 건물과 비밀상적인 모습인 파사드의 조화는 마치 하루키 문학 속 이항대립의 오묘한 어우러짐을 빚어낸 조형적 변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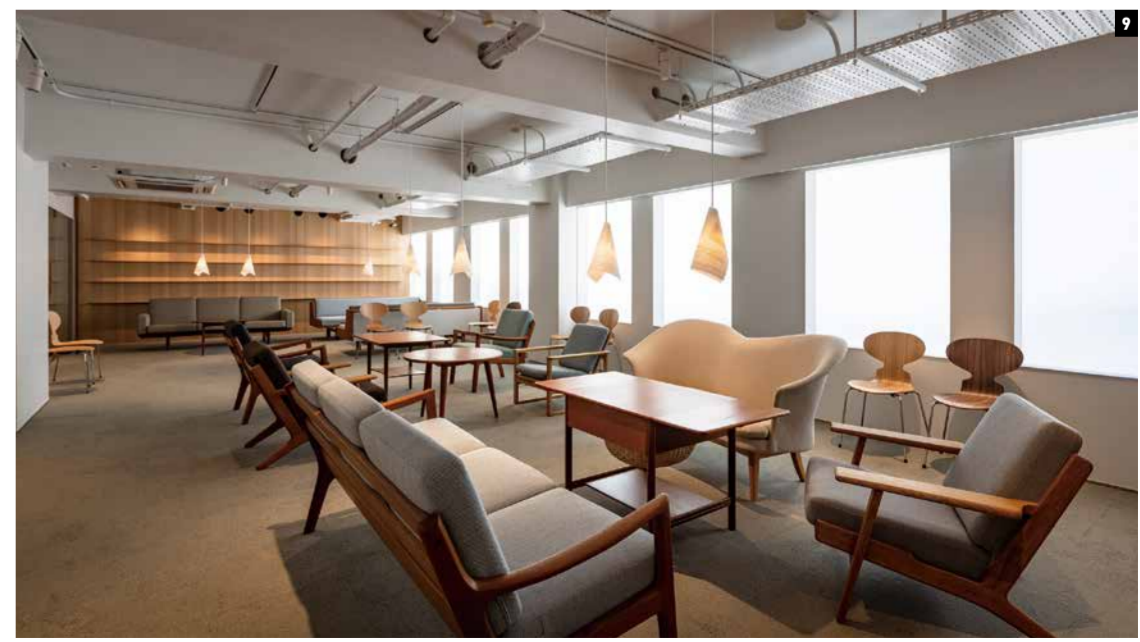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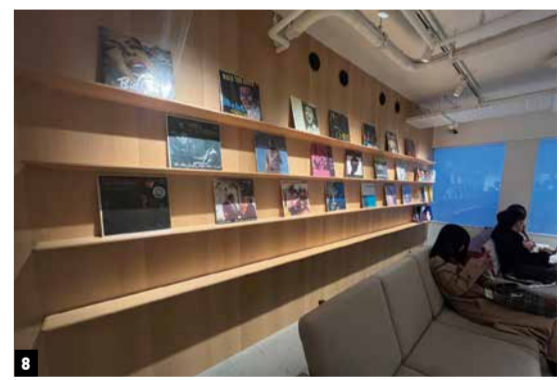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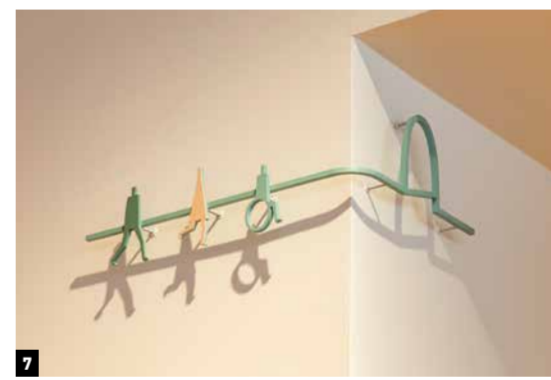
작가의 영혼이 깃든 듯한 분위기와 디테일

경사지에 세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외부와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하 1층에는 하루키의 서재를 재현한

특별한 공간과 와세다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자리하며, 1층에는 '갤러리 라운지'와 '오디오 룸'이 있다. 구마 겐고가 직접 선택한 덴마크 고가구를 내부 곳곳에 놓아두었는데, 이는 안데르센 마을 옌센에서의 인연을 은유하는 장치로 되어준다. 실제 하루키가 사용하던 가구들도 배치되어 있다. 갤러리 라운지 가운데에는 몇몇 명이 둘러앉아도 넉넉할 것 같은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고, 양 벽면에는 하루키의 초판부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긴 세월 필력을 이어온 작가의 살아 있는 역사를 보존한 공간으로, 한글 번역본도 시야에 들어왔다. 커다란 테이블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키의 소설을 읽고 있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오디오 룸에는 그가 평생 모은 LP 레코드 컬렉션의 일부가 진열되어 있고, 언제 들어도 감미

로운 재즈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곳에 적용한 사운드 시스템은 하루키의 개인 오디오 어드바이저가 직접 세팅해 작가의 오디오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또 방문자를 위해 곳곳에 놓인 작은 공간마다 하루키의 세계를 다양하게 녹여내고자 한 건축가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진다. 익숙한 듯 처음 대하는 듯한, 혹은 낯선 듯 친근하게 느껴지는 하루키 라이브러리는 단순한 도서관의 역할을 뛰어넘어 어디에든 따듯함을 부러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설정값이 따뜻함이었다. 미묘한 기시감과 미시감 사이를 오가며 일상과 문학 속 비일상을 헤매는 재미를 누리거나 재즈 선율을 벗 삼아 쉬었다 갈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또 하나 발견했기에 '도심 속 문학의 오아시스'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싶다. 글 박예현

1 해기 질 무렵 하루키 도서관(The Haruki Murakami Library)의 파사드 모습. 서쪽 파사드의 이채형 일구를 시작으로 나무 루버 프레임이 남쪽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파사드를 형성하는 유선형의 나무 루버는 이코(Kacoyala)라는 독재다. 이 프레임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이곳에 흐르는 자연의 에너지는 주로 수반에 많이 사용하며 보트를 만들 때 사용한다. 2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페. 3 HARUKI MURAKAMI 9 STORIES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9개 단편소설을 프랑스 아티스트 장-크리스토프 드브(Jean-Christophe Deveney)와 PMGL(Pierre-Marie Grille-Loulié)와 협업해 민화화한 작품. (행가게 체험과 함께), (아디가 땀 그칠 때 발견한 것 같은 장소에) 4 양쪽 긴 벽면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가득 전시한 갤러리 라운지. 5 KKAА에서 재규란 드로잉건축 도면. 6 실내 중앙부를 관통하는 터널. 책들 피고 앉아서 읽을 수 있는 넓은 계단장이 있다. 소자는 나리제(ナリ) 나리제 나리제의 나리제, 높은 내부성으로 위스키 숙성 통으로도 사용된다. 7 화장실 인포그래픽. 미치 소설 속 인물들이 안배하는 듯하다. 8 오디오 룸 한쪽 벽면에 하루키가 기증한 LP 중 일부가 진열되어 있다. Photo by SY Ko 9 오디오 룸에 있는 따뜻한 원목 재질의 고가구. * 1, 2, 7, 9 photo credit: Kawasumi Co., Ltd./Kenji Kobayashi Photography Office, 0비지 제로_KKAA3, 4, 6 Photo by HY Park





DIOR

LA ROSE DIOR COLLECTION
Yellow gold, white gold, pink gold and diamonds.